

文學碩士 學位論文

嶺南地域 木棺墓 研究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化財學科

柳 外 基

2009年 6月

嶺南地域 木棺墓 研究

指導教授 金 昌 鎬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6月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化財學科

柳 外 基

柳外基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2009年 6月

目 次

I. 머리말	1
1. 연구목적 및 방법	1
2. 연구사 검토	2
3. 목관묘의 정의	7
II. 목관묘의 기원과 유형	8
1. 목관묘의 기원	8
2. 목관묘 단계설정	11
3. 절대연대 설정	12
4. 목관묘 유형	14
III. 遺蹟의 檢討	18
1. 영남내륙지역	19
1) 慶州 朝陽洞遺蹟	19
2) 慶州 舍羅里遺蹟	21
3) 慶州 皇城洞遺蹟	23
4) 慶州 德泉里遺蹟	25
5) 大邱 八達洞遺蹟	30
6) 星州 禮山里遺蹟	34
7) 蔚山 茶雲洞遺蹟	37
8) 慶山 林堂遺蹟	39
2. 영남남부지역	42
1) 義昌 茶戶里遺蹟	43
2) 密陽 校洞遺蹟	45

3) 金海 大成洞遺蹟	48
4) 金海 龜旨路遺蹟	50
5) 金海 良洞里遺蹟	52
IV. 목관묘 유물 형식분류	53
1. 목관묘 출토 토기류 검토	53
1) 장경호	53
2) 단경호	54
3) 고배	54
4) 옹	55
5) 주머니호	55
6) 조합우각형과수부호	56
2. 유물단계설정	57
V. 맺음말	59
參 考 文 獻	67
Abstract	71

【표】

<표 1> 목관묘 단계설정	11
<표 2> 목관묘 유형별 단계설정	15
<표 3> 조양동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20
<표 4> 사라리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22
<표 5> 강변로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24
<표 6> 덕천리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26
<표 7> 팔달동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30
<표 8> 예산리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35
<표 9> 다운동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38
<표 10> 임당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40
<표 11> 다호리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42
<표 12> 교동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45
<표 13> 대성동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49
<표 14> 구지로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51
<표 15> 양동리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52

【삽도】

<삽도 1> 조양동유적 목관묘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21
<삽도 2> 사라리유적 목관묘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22
<삽도 3> 강변로유적 목관묘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24
<삽도 4> 덕천리유적 목관묘 목관종류에 따른 도수분포표 27
<삽도 5> 덕천리유적 목관묘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27
<삽도 6> 팔달동유적 목관묘 적석의 有無에 따른 단계별 도수분포표 · 32
<삽도 7> 팔달동유적 목관묘 목관종류에 따른 도수분포표 33
<삽도 8> 팔달동유적 목관묘 목관종류에 따른 단계별 도수분포표 33
<삽도 9> 팔달동유적 목관묘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34
<삽도 10> 예산리유적 목관묘 목관종류에 따른 단계별 도수분포표 36
<삽도 11> 예산리유적 목관묘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37
<삽도 12> 다운동유적 목관묘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38
<삽도 13> 임당유적 목관묘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41
<삽도 14> 다호리유적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44
<삽도 15> 교동유적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46
<삽도 16> 교동유적 위신재有無에 따른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47
<삽도 17> 교동유적 묘광면적에 따른 묘광비 도수분포표 47
<삽도 18> 대성동유적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50
<삽도 19> 구지로유적 목관묘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51
<삽도 20> 양동리유적 목관묘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52

【도면】

<도면 1> 영남지역 초기단계의 목관묘	10
<도면 2> 영남지역 목관묘 분포도	17
<도면 3> 경주 및 주변지역 목관묘유적 위치도	18
<도면 4> 덕천리유적 유구배치도	28
<도면 5> 장경호 단계설정	53
<도면 6> 단경호 단계설정	54
<도면 7> 고배 단계설정	54
<도면 8> 웅 단계설정	55
<도면 9> 주머니 단계설정	56
<도면 10> 조합우각형과수부호 단계설정	57
<도면 11> 토기유물 단계설정	58
<도면 12> I 단계 목관묘 평면형태	61
<도면 13> I 단계 목관묘 출토유물	62
<도면 14> II 단계 목관묘 평면형태 및 출토유물	63
<도면 15> II 단계 목관묘 출토유물	64
<도면 16> III 단계 목관묘 평면형태 및 출토유물	65
<도면 17> III 단계 목관묘 출토유물	66

I. 머리말

1. 연구 목적 및 방법

삼한시대¹⁾는 선사시대부터 농경을 기반으로 성장한 각 지역 정치체가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로 문헌사학과 고고학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²⁾ 특히 분묘유적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삼한시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영남지방에 있어 묘제의 변화는 일부 공존하나 지식묘·석관묘→토광묘→목관묘→목곽묘→적석목곽묘→석곽묘→석실묘→토광묘 순으로 변화한다. 목관묘는 삼한시대의 대표적인 묘제이며, 출토유물에 있어 무문토기에서 와질토기로 변화하며,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변화한다. 목관묘가 축조되는 시기는 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과도기적 단계이다.

《삼국지위서동이전》 기원전 194년 : 위만의 조선공탈,
준왕의 남하(전국계 기원설)
기원전 108년 : 고조선과 한의 전쟁
과 역계경의 남하, 한사군 설치(낙랑
계 기원설)

목관묘는 삼한시대에 새롭게 출현하는 묘제이며, 그동안 영남지방에 국

1)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대를 지칭하는 시대명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는데, ‘초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 ‘삼한시대’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삼한시대(원삼국시대)는 삼국시대 이전을 지칭하는 용어로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다. 하지만 논문의 정황과 시기구분의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이 글에서는 삼한시대로 통칭한다.

2) 권오영,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p.2-12.
李在賢,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3, pp.1-7.

한되어 발견되는 묘제로 인식되었으나 중부지역에서 삼한시대 목관묘가 확인되고 격자타날된 와질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목관묘 및 와질토기의 기원에 있어서는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많다.

와질토기가 낙랑의 영향으로 영남지방에 전파되었다는 주장과 연의 문화가 영남지방으로 전파되었다는 주장으로 이분된다. 하지만 목관묘의 시작은 와질토기 출현 전 무문토기단계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목관묘의 시작은 와질토기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목관묘의 단계설정에 있어 무문토기시기, 와질토기 승문타날시기, 와질토기 격자타날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무문토기시기는 아직까지 영남지역 목관묘에 타날이 확인되기 전이며, I 단계로 설정하였다. 와질토기 승문타날시기는 II 단계, 와질토기 격자타날시기는 III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는 타날의 유행시기를 단계로 구분한 것이지 이 단계에 모든 토기에서 동일한 타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논고에서는 변화의 시작을 문헌자료와 대입하여 목관묘의 시작에 대해 알아보고, 영남지역에 있어 목관묘를 I·II·III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별 목관묘의 변화양상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사 검토

목관묘는 무문토기에서 와질토기로 변화되는 시기에 생겨나는 묘제로 지금까지 연구는 목관묘보다 와질토기의 발생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와질토기는 삼한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인데 원삼국(삼한)이라는 시대명을 처음으로 주장한 연구자는 김원룡이다. 그는 삼한시대가 남한에서 김해패총의 퇴적층 문화로 대표되는 단계라 판단하고 청동기의 소멸, 철 생산의 성행, 도작의 발전, 지석묘의 소멸, 김해식토기의 출현이 문화적 특징이라 하였다³⁾.

1977년에 경주 조양동 유적에서 와질직구호가 신고되고, 1979년부터

3)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986.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무문토기도 아니면서 삼국시대의 경질토기도 아닌 기와질의 토기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경주 금장리의 점토대토기층 위에서 발견된 회색와질의 타날문토기를 와질토기로 명명하고 기원을 낙랑에 두었다⁴⁾.

이에 반해 최병현은 와질토기의 전국기원설을 주장하였다⁵⁾. 와질토기는 세죽리 연화보 유형의 토기가 중부지역을 거쳐서 낙동강유역권으로 유입된 결과 탄생한 토기이며, 낙동강유역권에서 조양동 38호 출토 토기를 최고의 와질토기로 보았다. 최병현은 와질토기의 여러 속성 중에서 ‘타날’보다는 ‘요의 도입’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타날기법이 채용된 토기가 출토된 조양동 38호보다 시기가 빠르다고 본 다호리 1호에서 타날이 없는 환원염소성의 주머니호가 출토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인성은 와질토기의 기원을 전국 연에 두고, 와질토기의 시작을 기원전 3세기까지 올려 보았다. 팔달동 41호에서 산화염소성이면서 저부가 평저인 단경호가 출토되었는데, 그 제도법이 무문토기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아 재지의 공인이 권역내로 이입된 회도 단경호를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추측하였다. 또한 단경호에 승(석)문타날이 본격적으로 채용된 후에도 태토에 굵은 모래가 섞이고 뚜렷한 형식변화의 방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소성도가 고르지 못한 점 등을 참고하면 재지의 무문토기인이 타날과 환원염소성을 기본으로 하는 회도 기술을 습득해서 완성시키는 데는 제법 긴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저부의 원저화는 환원염소성, 승문타날과 함께 무문토기와 와질토기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구분하고, 예산리 3호 출토유물의 시기를 다호리 출토 유물과 비교하여 예산리 3호 승문타날된 원저 단경호를 영남지방 최초의 와질토기로 보았다⁶⁾.

4) 신경철, 「부산·경남출토 와질계토기」, 『韓國考古學報』 12, 1982, pp.39-87.

최종규, 「도질토기 성립전의 전개」, 『韓國考古學報』 12, 1982.

5) 崔秉鉉, 「原三國土器의 系統과 性格」, 『韓國考古學報』 38, 1998.

6) 鄭仁盛, 「‘와질토기 낙랑기원설’의 검토」, 『嶺南考古學報』 47집, 2008.

鄭仁盛, 「洛東江流域圈의 瓦質土器, 그리고 樂浪土器」, 『조사연구회』 21집, 2008, p.85.

한편 이성주는 와질토기의 계보를 낙랑과 전국으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낙랑토기 그 자체가 전국토기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와질토기의 기술 계보는 전국시대 토기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병현과 마찬가지로 와질토기의 발생시기는 낙랑군 설치 이후로 보았다. 와질토기의 기준을 승(석)문 타날, 환원염소성, 구운 원료점토, 부위별 접합성형, 회전성형과 정형이라고 정리했는데 특히 환원염소성과 타날을 중요한 속성이라고 판단했다⁷⁾.

지금까지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와질토기는 한사군 설치 이후 분명한 차이가 있고⁸⁾, 한사군이 설치된 이후에는 기존의 중국 동북지방의 문화가 아닌 한반도 서북한 지방의 문화가 영남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북한 지방의 문화가 영남지역으로 들어와 목관묘에 매납되는 일정의 시간을 고려하여 II단계의 시작을 기원전 1세기 중반으로 설정하였다.

와질토기는 보는 시각에 따라 그 시작을 달리 볼 수 있으며, 환원염소성으로만 본다면 기원전 2세기까지 올려 볼 수 있지만 환원염소성, 정선된 점토사용, 승문타날, 회전판 사용, 저부 원저화 등 와질토기의 충족 요건을 모두 갖춘 시기는 II단계부터이다.

토기에 있어서 타날은 신석기시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으나 영남지역 목관묘의 경우 I 단계에는 타날이 확인되지 않고, 와질토기의 등장과 함께 II단계부터 타날이 이루어진다. 승(석)문타날은 와질토기로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타날의 도입 이후부터를 와질토기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목관묘 연구는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유물의 편년이 중심이 되었으며, 목관묘의 단계별 변화양상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7) 이성주, 「변·진한지역 고분 출토 1~4세기 토기의 편년」, 『영남고고학보』 24, 1999, pp.59~80.

이성주, 「영남지방 삼한시대의 토기」, 『삼한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변동』 제 29회 한국 고고학전국대회, 2005.

8) 기존에 단경호에서만 저부가 원저였으나 조양동 38호를 기점으로 부장되는 토기는 원저를 기본으로 하고 와질토기로 변화된다.

최근들어 목관묘의 유형과 유물을 통한 위계화의 정도를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다호리유적 보고자는 목관묘를 I·II·III유형으로 분류하고, I 유형은 묘광의 규모가 길이 240~278cm, 너비 110~136cm, 현 깊이 120~205cm로 부장갱이 있으며 부장품이 비교적 많은 목관묘, II유형은 묘광의 규모가 I 유형에 비해 약간 작고 부장갱 없는 목관묘, III유형은 묘광의 규모가 제일 작고 깊이가 얕으며 규모가 길이 160~200cm, 너비 55~64cm, 현 깊이 20~40cm로 부장갱이 없는 목관묘로 설정하였다. 또한 분류된 목관묘는 신분의 차이로 보았다⁹⁾. 다호리유적처럼 시기차가 적고 II단계에 집중되는 목관묘의 경우 신분차로 볼 수 있으나 각 단계별 묘광규모차는 시기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용성¹⁰⁾은 경산과 대구지역에서 조사된 목관묘와 목곽묘단계의 분묘에서 출토되는 토기를 대상으로 각 단계별로 분묘에 매납된 중요 기종을 형식 분류하였다.

이재현¹¹⁾은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최초의 지역정치체라 할 수 있는 변·진한사회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들이 어떠한 성장과정을 겪어면서 국가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는가를 살폈다. 목관묘 단계에는 정치권력의 형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목곽묘 출현기부터 중심집단의 대형묘가 규모나 입지에서 일반민의 묘와는 차별을 볼 때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권력의 형성된 계급 혹은 계층화된 사회로 보았다.

권지영¹²⁾은 목관묘의 묘광면적이 4m²를 기준으로 4m²이상은 A류, 이하는 B류로 구분하고, 위신재인 검과 모의 공반 관계에 따라 신분적 차이를 설명하였다.

9) 李健茂 外,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 『考古學誌』第1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87, pp.46-47.

10) 金龍星, 「土器에 의한 大邱·慶山地域 古代墳墓의 編年」, 『韓國考古學報』35집, 한국고고학회, 1996.

11) 李在賢, 앞의 글, 2003.

12) 權지영, 「弁·辰韓社會의 發展樣相에 대한 研究-木棺墓에서 木槨墓로의 轉換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권석호¹³⁾는 무문토기 사용시기 ‘石築式石棺墓’ 또는 ‘石築式石槨墓’는 圍石式土壙墓와 구분되며, 위석식토광묘 A-1류, A-5류, A-6류, B류에서 목관이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또 위석식토광묘 A-3류는 삼한시대 적석목관묘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희철¹⁴⁾은 경주지역 목관묘를 3유형으로 나눈 뒤 목관내부에 부장된 구슬과 옥의 부장양상을 대입하여 계층화를 살폈다. 다시 말해 경주지역 목관묘에서 확인되는 구슬 및 옥의 부장은 시기 차이가 거의 없는 A유형과 B유형이 대부분 함께 나타나며, 유물의 부장에 있어 A유형은 구슬을 제외하면 토기와 철기의 부장양이 빈약한데 비해 B유형은 철기와 토기의 부장이 증대되며 수장묘로 볼 수 있는 조양동 38호묘와 같이 상위계층묘도 확인된다. 이로 볼 때 구슬과 옥의 부장량이 다수를 차지하는 A유형을 기층민의 묘로 그리고 청동 위세품과 다수의 철기와 토기가 부장된 B유형을 상위계층묘이며, 이후 B유형은 목관계목곽묘로 전화되는 C유형으로 변화되는 양상으로 보았다.

최명수¹⁵⁾는 묘제의 변화를 통해 신라의 발전양상에 대하여 알아보고 토광목관묘는 위만조선계 유이민 세력에 의해 기원전 2세기 말~기원전 1세기 초에 전래되어 기원후 2세기 후반에 목곽묘로 전환되기까지 사료국 성립초기의 중심묘제로 아직까지 국읍의 정치세력이 읍락의 수장들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고 군장의 성격이 남아있던 시기의 묘제로 보았다.

13) 권碩鎬, 「無文土器 使用時期 嶺南地方 木棺墓의 構造와 形態에 관한 研究」, 東義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5.

14) 金熙哲, 「三韓時代 慶州地域 木棺墓 研究」,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7.

15) 崔明銖, 「新羅의 發展과 墓制의 變遷에 관한 研究-土壙木棺墓에서 積石木槨墓까지-」,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7.

3. 목관묘의 정의

목관묘는 피장자가 착장한 신근유물 이외의 토기나 금속유물은 목관 외부에 부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외 부장된 유물을 보호하는 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목관과 목곽의 차이는 관을 보호하는 곱의 유무로 구분되어야 한다. 목관묘와 목곽묘는 내부조사시 관과 곱의 존재가 파악되어야 하므로 사라리 130호나 조양동 60호처럼 조사자들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청동기시대 지석묘나 석곽묘의 경우 유물이 관내 부장되며, 목관묘는 관외 부장으로, 목곽묘는 유물을 부장하는 공간을 따로 마련한 후 목곽으로 보호하는 형태로 변화된다. 최근 조사를 통해 청동기시대 석관묘 내부에서 목질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유물이 관외 부장되는 경우에만 위석식 목관묘·적석목관묘로 간주할 수 있다.

묘광의 규모는 사람의 인체크기보다 약간 큰 정도로서 길이 2~3m, 너비 1m 내외로 목관묘는 목관의 외부와 상부에 돌로써 쌓거나 채운 것이 있고, 흙만 채운 것도 있다. 그리고 목관의 部材는 판재와 통나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목관의 아래에 부장품을 넣기 위해 腰坑을 설치한 것도 있다. 돌 시설이 있는 것은 I류, 없는 것은 II류로 크게 구분하고, 각 류는 다시 소형식으로 구분하였다. I류는 목관외부의 돌 채움을 기준으로 石槨처럼 돌을 쌓은 것(1), 돌을 무질서하게 채운 것(2), 목관외부의 돌 채움이 없이 목관 상부에만 積石이 있는 것(3)으로, 그리고 II류는 관의 형태에 따라 통나무관은 a, 판재관은 b로 구분하고 1→3형식으로 변화된다고 보았다¹⁶⁾.

봉토가 확인된 목관묘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주구가 확인되고, 토층의 양상에서 묘광 내부토와 묘광 외부토로 구분되는 것으로 볼 때 목관묘에 있어 봉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 李在賢, 앞의 글, 2003, pp.86~87.

II. 목관묘의 기원과 유형

1. 목관묘의 기원

목관묘의 기원은 영남지역에 있어 목관묘의 시작을 어디까지 올려 볼 것인가하는 문제와 결부된다. 고식의 세형동검과 세문경을 포함하는 목관묘는 금강과 영산강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초기의 목관묘는 묘광을 굴광한 후 목관을 안치하고 굴광된 묘광 상부를 목관으로 덮은 목개목관묘이다. 목관상부 또는 목개 상부를 적석하는 적석목관묘도 초기 목관묘의 한 유형이다. 최근 발굴조사 된 문당동 II-1호는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목개목관묘이며, 영남남부지역 최초로 세문경이 확인된 사천 월성리유적은 적석목관묘로 초기단계의 목관묘로 볼 수 있다.

영남지역 목관묘의 시작에 있어서는 한사군 설치 이후 낙랑의 문화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발생되었다고 주장되어져 왔다. 하지만 고고학적 검토 결과 금강과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초기의 목관묘가 영남지역에서 확인되고 조양동, 팔달동 유적에서 알 수 있듯이 목관묘의 시작은 기원전 2세기까지 올려 보아야 한다. 원형점토대 옹이 확인된 팔달동 40호, 세문경이 출토된 월성리 1호, 청동기만 부장된 임당 FI-42호 등은 기원전 2세기 전반의 목관묘이다. 또한 최근 조사된 문당동 II-1호 목관묘에서 비파형동검¹⁷⁾이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영남지역에 있어 한국식동검문화와 궤를 같이하는 목관묘가 조사될 가능성이 높다.

목관묘는 영남지방에서 지속되어져 오던 석재를 이용한 묘제와는 달리 목관을 이용하여 시신을 보호하는 형태로 변화하며, 위석식목관묘나 적석목관묘는 석재를 사용하여 묘를 축조한 집단과 목관을 사용하는 집단의 융합 과정에서 생겨난 과도기적 묘제로 볼 수 있다. 이후 목관 상부 또는 측면에 적석되는 형태가 변형되거나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목개 사용 대신

17)李清圭, 「嶺南지방 靑銅器文化의 전개」, 『영남고고학보』 21집, 영남고고학회, 1997, p.34~69. 洛東面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과 유사하며, 이청규의 비파형과 세형의 중간형인 BIII에 해당하며 4유형이다. 이청규는 4유형을 기원전 300년~200년으로 설정하였다.

흙 채움으로 변화된다.

석관묘나 지식묘의 하부구조는 돌을 방자형태로 짜고 시신을 매장하는 형태이지만 목관묘는 석관묘와 달리 판재식목관이나 통나무관을 사용하여 시신을 보호한다. 또한 부장 유물에 있어서도 지식묘와 석관묘에 비해 유물의 빈도수가 증가하고,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조합우각형과수부호, 주머니호 등의 토기가 출현한다. 목관묘의 시작을 재지의 문화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지식묘의 권역과 세형동검의 권역이 서로 다른 것도 이를 증명해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목관묘는 기원전 2세기를 전·후하여 유이민의 남하 과정에서 확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묘제는 물질문화 중에 가장 변화가 느리며 문화의 전파로 인해 쉽게 변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사된 목관묘로 볼 때 영남지방에 있어 기원전 2세기를 전·후하여 목관묘가 확산되었으며, 대구·경주를 중심으로 한 영남내륙지역에서 낙동강 하류로 이동했을 것이다.

영남지방의 목관묘 유적으로는 경주 조양동·사라리·황성동·덕천리·인동리유적, 창원 다호리유적, 김해 양동리·구지로유적, 영천 어은동·용전리, 경산 임당유적, 대구 팔달동유적, 성주 예산리유적 등에서 확인되었다. I 단계 목관묘는 팔달동유적·조양동유적·임당유적·다호리유적 등 소수에 불과하지만 청동유물 또는 초기철기 유적으로 볼 때 영남지역 대부분의 지역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⁸⁾.

목관묘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I 단계는 무타날단계, II 단계는 승(석)문타날단계, III 단계는 격자타날단계이다. 목관묘는 철기가 부장되고, 부장되는 토기 또한 무문토기에서 와질토기로 변화한다.

목관묘의 변화는 출토유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목관묘 출토 와질토기를 전국 연이 기원이라는 설과 낙랑을 기원으로 보는 설로 이분되어진다.

와질토기는 지금까지 무문토기와 다른 환원염 소성의 토기로 한사군 설치 후 영남지역에 등장한다. 한사군 설치 후 영남지역 목관묘는 출토 유물의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한사군 설치 이전에도 분명 영남지방에는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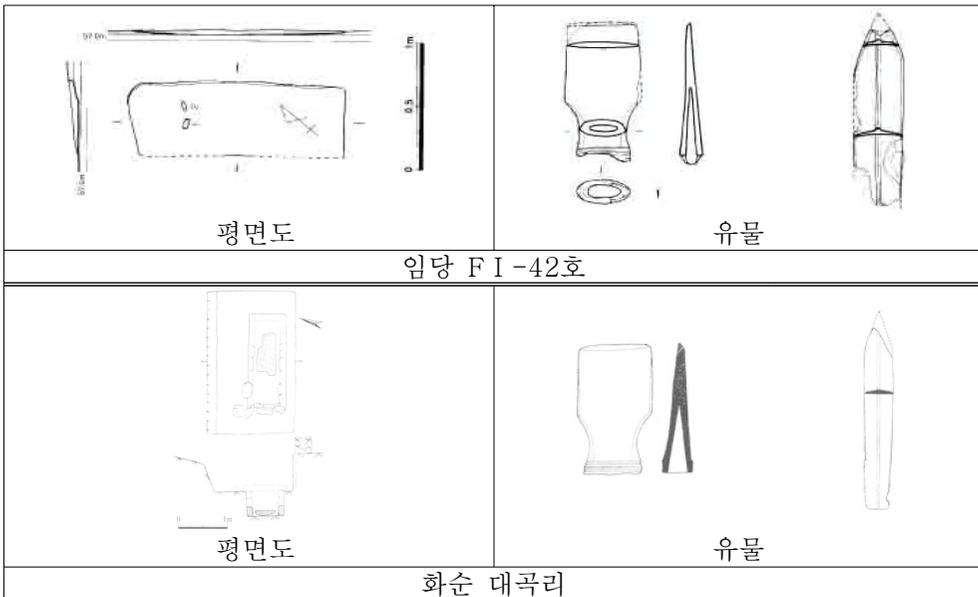
18) 朴升圭, 「慶州 舍羅里遺蹟 130號墓에 대하여」, 『신라문화』 14집, 신라사학회, 1997.

문토기를 동반한 목관묘가 확인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대로 목관묘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영남 지방의 목관묘는 유이민의 남하와 재지의 묘제가 융화되어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I 단계부터는 한반도 서북한 지역의 승(석)문 타날을 기본으로 하는 와질토기 문화가 연계된다.

목관묘는 매장주체시설의 형태에 따라 판재식 목관과 통나무식 목관으로 분류되며 보강토와 목관 상부에 활석을 채우는 예가 있는데 이를 구분하여, 적석식목관묘 또는 위석식목관묘로 세분하기도 한다. 다시말해 목관묘가 도입되기 전 영남지방에는 석관묘와 토광묘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철기문화 집단은 분명 우월한 입지를 가졌을 것이다. 재지의 세력은 빠른 시간 안에 신문화를 채용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융합된 묘제가 목관의 상부 또는 측면에 돌을 채우거나 쌓는 형태인 위석식목관묘·적석목관묘로 변화했을 것이다. 임당 FI-42호 목관묘 출토 유건동부의 경우 화순 대곡리 적석목관묘 출토 유건동부와 형태상 유사하며 초기 단계의 목관묘로 볼 수 있다. 시기는 기원전 2세기 초로 판단된다.

<도면 1> 영남지역 초기단계의 목관묘



2. 목관묘 단계설정

목관묘는 크게 적석의 유무에 따라 적석목관묘, 순수목관묘로 구분되며 목관의 종류에 따라 판재식목관, 통나무관으로 구분된다. 통나무관은 통나무를 반으로 절단한 후 그 내부를 파내어 만든 구유형의 독목관으로 북부지역에서 확인되지 않아 중국 사천지역 전국시대 묘제에 이와 유사한 船棺葬의 獨木棺에서 기원을 찾기도 한다¹⁹⁾.

<표 1> 목관묘 단계설정

I	a	문당동Ⅱ-1호, 임당FⅠ-42호, 조영1B-7호, 팔달동40호
	b	조양동13호, 팔달동41호, 팔달동77호
	c	조양동5호, 예산리1호, 임당FⅡ-34호, 팔달동39·75·86호
II	a	임당AⅠ-74호, 예산리3·25·31호, 팔달동78·90·94호
	b	팔달동28·29·30·31·32·37·38·47·48·65·82·85·96·101호, 임당E-58호 예산리18호, 도항리30·58·59·70·72·74호, 다호리10·32·38호 조양동11·20·28·38·52·58호, 황성동(라)15호·강변로2·3호
III	a	사라리130호, 조양동23·35·36·52·55·60호, 송두리1호, 예산리14호 다운동(나)19호, 팔달동106·111호, 도항리25·60·65호
	b	양동리427호, 조양동31·33·35·47호, 사라리78·110호, 팔달동107호 조양동18·23·35호, 예산리4·27호, 도항리21·24·31호
	c	다운동 나13호

19) 국립중앙박물관, 「다호리 유적 발굴 성과와 과제」, 2008, p.9.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목관묘는 3단계로 구분되며, 작제는 7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I 단계는 목관묘 전기로 승(석)문 타날이 출현하지 않은 무타날 단계이며, 무문토기단계이다. 점토대용이 주요 부장품이지만 유물의 부장수가 적고, 묘광의 규모가 대체로 소형이 많다.

II 단계는 무문토기에서 와질토기로 변화하며, 승(석)문타날이 시작된다. 유물은 주머니호와 조합우각형과수부호가 확산되며, 주머니호는 점토대용에서, 조합우각형과수부호는 흑도장경호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IIa 단계에는 단경호에만 승(석)문타날이 확인되다가 IIb 단계가 되면 전 기종으로 확산된다. 묘광의 면적이 소형은 줄어들고 중형 목관묘가 늘어난다.

III 단계는 와질토기 격자타날 단계이며, 사라리 130호·조양동 60호가 대표적이다. 묘광의 면적은 소형이 사라지고 중·대형으로 변화한다.

영남지역의 목관묘 출토 유물은 단계별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된다. 타날 토기의 전파 경로는 늑도유적과 북부구주의 사이에 위치하는 이키섬의 하루노즈지 유적에서 요동지역과 연결되는 타날토기가 확인되었으며, 오키나와에서 명도전과 삼릉축 등이 출토된 사례와 종합해서 판단하면 요동지역과 한반도 남부지역, 그리고 오키나와까지 연결하는 광역의 국제 교역망에 낙동강유역권도 편입되었을 것이다²⁰⁾. 따라서 태백산맥에 가로막힌 육로 보다는 해로를 통해 전파되었을 것이다.

3. 절대연대 설정

목관묘에 있어 연대를 비정할 만한 자료가 출토된 유물은 극히 한정적이다. 그 가운데 절대연대의 표지가 되는 목관묘로는 다호리 1호와 조양동 5, 38호 목관묘이다. 조양동 5호에서는 세문경이 퇴화된 소형의 소문경이 출토되고, 조양동 38호에서는 소명경, 일광경, 내행화문경, 사유경

20) 정인성, 「변한·가야의 대외교류-낙랑군과의 교섭관계를 중심으로-」,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혜안, 2004.

등 전한경이 사면에서 출토되었으며, 다호리 1호에서는 성운경 및 오수전이 출토되었다. 다호리 1호와 조양동 38호 출토유물은 형식차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때 다호리 1호 목관묘가 조양동 38호 목관묘에 비해 한 형식 빠른 것으로 보여진다. 다호리 1호는 기원전 1세기 후반, 조양동 38호는 기원후 1세기 전반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청규는 다호리 1호와 조양동 38호를 7유형으로 설정하였다. 다호리 1호 출토 성운경은 낙양 소구묘 제4기에 해당하며 실연대상으로 기원전 1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나 낙양에서 영남지방으로 반입되고 무덤에 부장될 때까지의 전세기간을 따져 기원전 1세기 후반으로 편년하였다²¹⁾. 다호리 보고자 또한 1호 목관묘를 출토된 성운경에 근거해서 B.C. 1세기 후반으로 편년하였다²²⁾. 조양동 38호는 출토된 전한경이 소구묘 제5기에 속하고 기원전 1세기 중반경으로 편년되므로 영남지방에서는 기원전 1세기 말 경으로 추정하였다²³⁾.

최종규는 조양동 38호 출토 동경을 『후한서』 건무20년(A.D. 44년)경 한군현과 남부 지방과의 교섭 기사로 A.D. 1세기의 2/4분기 중말부터 한식경이 유입되었다면 조양동 38호의 연대를 A.D. 1세기 1/4분기, 또는 늦어도 2/4분기 이후로는 내려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²⁴⁾.

이외의 영남지방에서는 연대를 적시해 줄 만한 정확한 자료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 단지 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 목관묘 출토 오수전이라 할 수 있는데, 오수전은 한나라 무제때 처음으로 통용된 화폐이다. 오수전이 출토된 목관묘 유적으로는 다호리 1호묘와 임당A-I-74호 등이 있다. 지건길은 다호리 1호 출토 오수전은 II형식에 해당하며, 한나라 선제

21)李清圭, 앞의 글, 1997, pp.68~71.

22) 이견무 外, 「의창 다호리유적 발굴진전보고(1)」, 『고고학지』 제1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89, PP.5~174.

23) 이청규는 조양동 5호를 자신의 청동기문화 6유형으로 설정하고 상한을 서북한 지역의 한군현 설치를 상한으로 보았다. 다호리 1호와 조양동 38호는 동일한 단계 즉 청동기문화 7유형으로 보고 B.C 50~A.D 0년 까지로 보았다. 조양동 5호는 기원전 1세기 전반으로 다호리 1호와 조양동 38호는 기원전 1세기 후반에 해당한다.

24) 崔鍾圭, 「도질토기 성립전의 전개」, 『韓國考古學報』 12, 1982.

대부터 평제대 사이에 (B.C.74~A.D.5) 구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²⁵⁾.

김용성은 다호리 1호와 조양동 38호를 동형식 단계로 보고 자신의 편년안 2a단계에 위치시키고 와질토기 발생에 대한 최종규의 편년안을 받아들여 B.C. 50~A.D. 50년으로 편년하였다²⁶⁾. 이성주는 다호리 1호와 조양동 38호의 출토 환경을 AD. 1세기 전반으로 편년하였다.

최종규의 주장과 달리 『후한서』 건무20년(A.D. 44년)경 한군현과 남부지방과의 교섭 기사 이전부터 한문화는 영남지역으로 유입되었으며, 전세기간²⁷⁾을 설정하더라도 조양동 38호는 출토 토기의 조합상으로 볼 때 II b 단계에 해당한다. 시기는 기원후 1세기 전반이다.

목관묘 I 단계는 기원전 2세기 전반에서 기원전 1세기 전반까지이며, II 단계는 기원전 1세기 중반~기원후 1세기 중반까지이다. III 단계는 기원후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중반까지이며 다운동 나13호에서 대부호가 확인되는 것을 볼 때 III 단계 末에 위치시킬 수 있다. 기원후 2세기 중반에는 목관묘와 목곽묘가 일부 공존해서 사용되다가 2세기 후반이 되면 방형의 목곽묘로 변화된다.

4. 목관묘 유형

목관묘는 돌의 유무에 따라 적석목관묘와 순수목관묘로 구분된다. 적석목관묘는 적석이 목관의 측면과 상부 전체에 채워지는 경우와 목관의 측면에만 채워지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후자의 경우 적석의 형태가 소멸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석목관의 경우 다수의 돌이 적석되거나 일정한 정연성을 보일 경우에만 적석목관묘로 간주할 수 있다. 목관묘는 다시 매장주체시설인 목관의 형태에 따라 판재식관과 통나무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25) 지진길은 이 당시는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지진길, 「남해안지방 한대화폐」, 『창산김정기박사회갑기념논총』, 1990, pp.534~549.

26) 金龍星, 앞의 글, 1996.

27) 최성락, 『한국 원삼국시대의 연구』, 학연문화사, 1993.

다시 정리하면,

I 적석목관묘 -A통나무관
B판재식관

II 순수목관묘 -A통나무관
B판재식관

영남지역에 있어 적석목관묘의 초기형태는 팔달동 45호, 조양동 5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팔달동 45호는 기반층인 풍화암반층을 파내고, 바닥에 암적갈색 사질점토를 3~4cm 정도 깐 다음 그 위에 통나무관을 놓았다. 통나무관과 묘광사이에는 목관상부 높이까지 암적갈색 사질점토를 충전하였다. 묘광내의 토층에서는 함몰토가 대부분 묘광의 어깨선에서부터 급경사로 내려오고, 적석 또한 함몰토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충전토와 함몰토의 성격이 매우 다른 점으로 보아, 목관과 목개 사이에는 흙을 채우지 않고 비워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목개 위에는 10~40cm 정도 되는 할석을 약 100여개 적석하였는데, 적석의 함몰양상으로 보아, 큰 할석을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작은 할석을 쌓은 것으로 판단된다. 적석 사이에서 지석과 토기편들이 섞여서 출토되었다.

적석목관묘의 초기 형태는 석관묘와 유사하다. 관의 재질이 석관에서 목관으로 변화되고 유물 부장에 있어 관내 부장에서 관외 부장으로 변화된다. 적석목관묘·위석식목관묘는 토광묘와 석관묘에서 변화되어 외래의 문화와 융화되어 생겨난 묘제로 판단된다.

<표 2> 목관묘 유형별 단계설정

단계 유형	I 단계	II 단계	III 단계
I A			
I B			
II A			
II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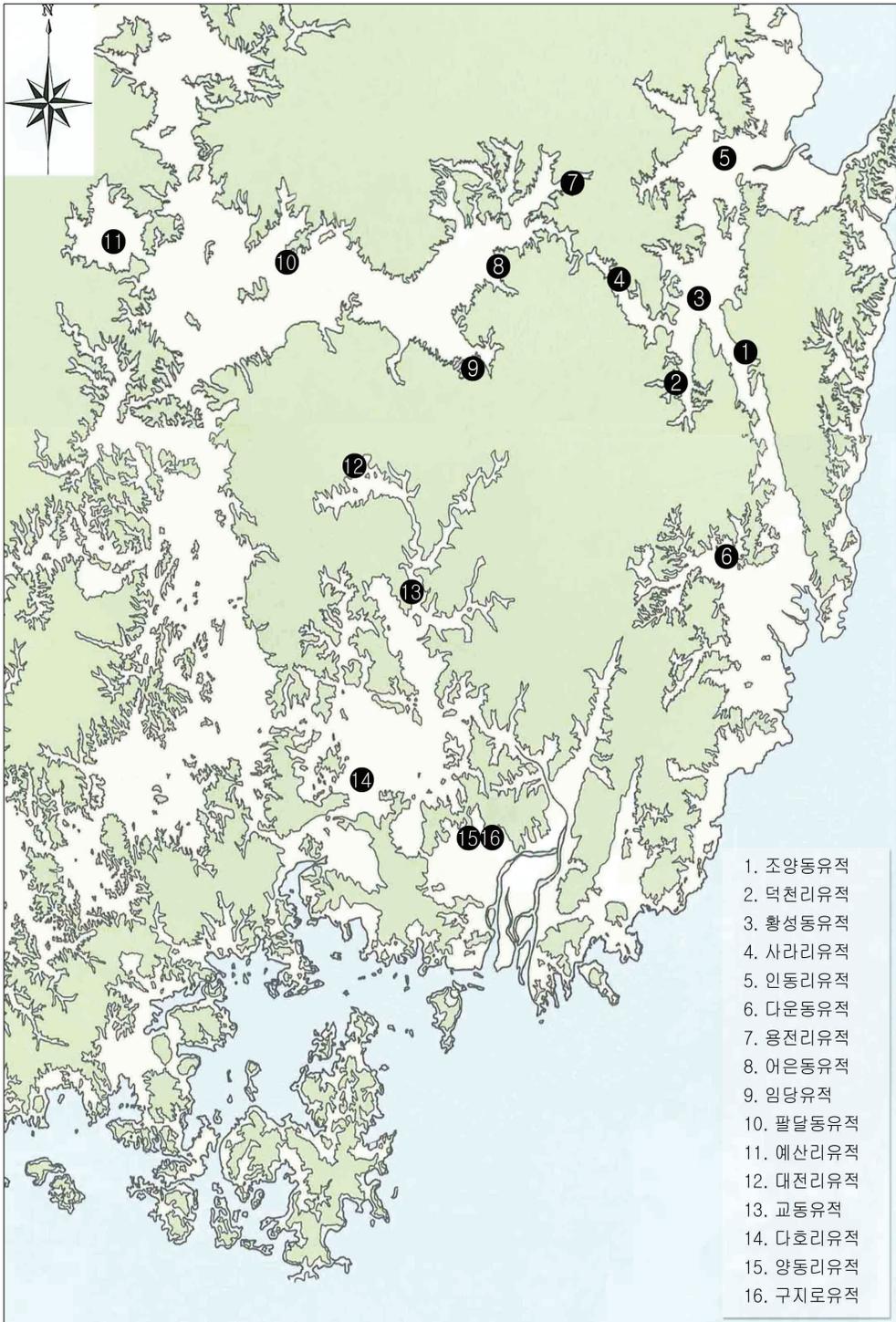
I 단계에는 목관묘를 직접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거나 재지의 석관묘와 결합하여 사용한 집단으로 구분되며, 금강과 영산강을 중심으로 분포하나 영남지역에 있어 문당동·팔달동·조양동유적에서도 확인된다. IA유형에 해당되는 화순 대곡리 적석목관묘는 최근 재조사를 통해 통나무관임이 밝혀졌다.

II B형식에 해당하는 문당동 II-1호 목관묘에서 퇴화형 요령식동검이 확인되고 흑도장경호는 괴정동 출토품과 유사하여 영남지역에 있어 가장 이른 시기의 목관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목관묘의 시작을 한 단계 올려 보아야 하나 다음 단계와의 공백기가 너무 커 이번 논고에서는 목관묘의 先頭에 놓고 목관묘의 시작단계로 보았다. 하지만 영남지역에 있어 한국 식동검문화와 궤를 같이하는 목관묘가 조사될 가능성이 높고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다면 하나의 단계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영남지역 뿐 아니라 호남지역에서도 통나무관이 확인되고 I 단계의 이른 시기에 판재식 목개목관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I 단계는 통나무관과 판재식목관이 혼재되어 사용되었으며, 선후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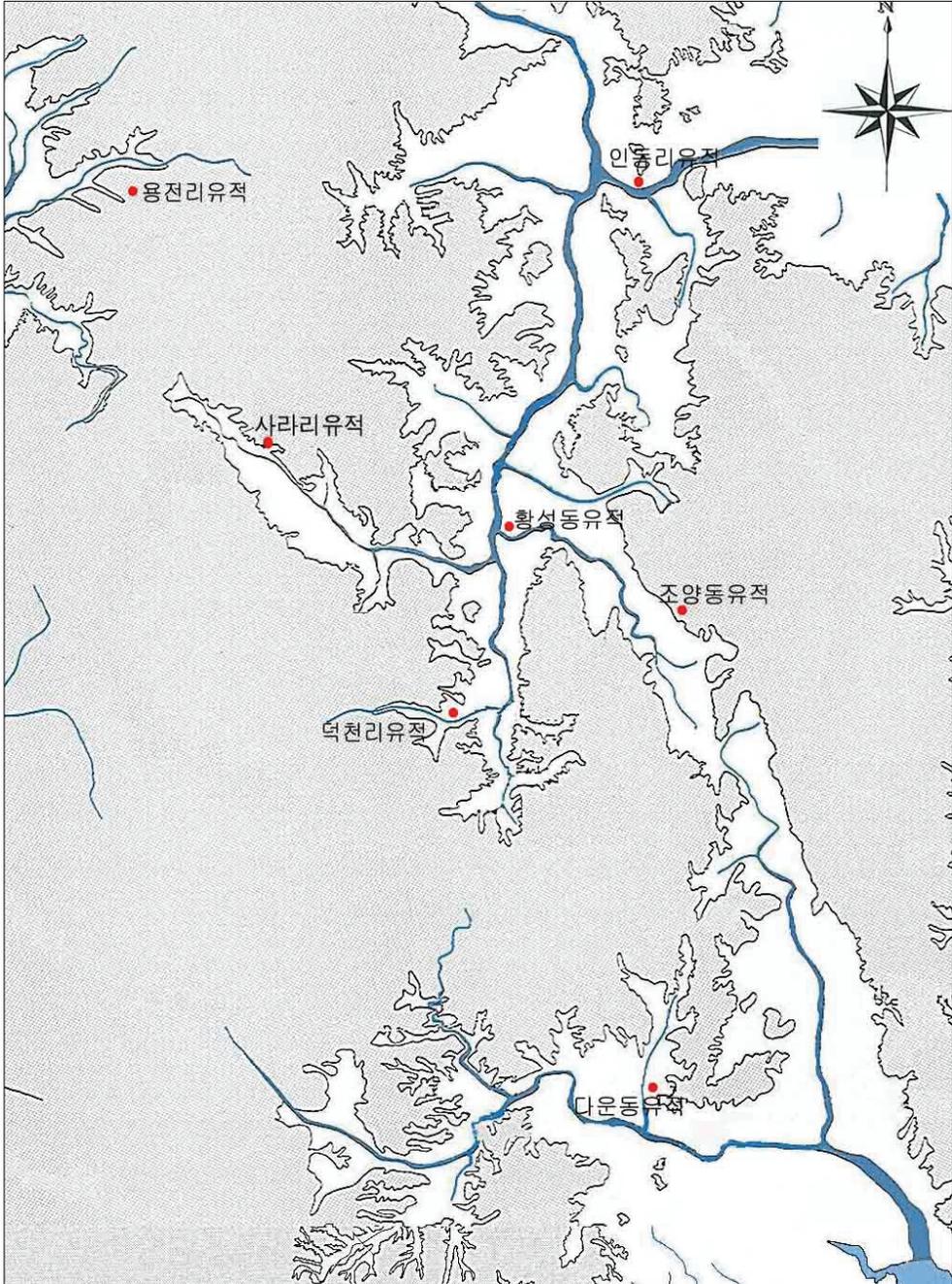
II 단계에는 목관묘에 적석되는 형태가 유지되나 적석의 형태가 변화되어 목관의 측면 또는 상부에만 적석되는 형태로 간소화되며, 순수목관묘가 증가한다. 순수목관묘의 경우 영남내륙지방은 조양동유적·강변로유적 등 판재식목관묘가 우세하며, 영남남부지방은 교동유적·다호리유적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통나무관이 사용된다.

III 단계에는 적석+통나무관 목관묘는 사라지며, 목관묘에 적석되는 비중이 줄어들고, 판재식목관묘로 변화된다. 통나무관은 덕천리유적·인동리유적 등 일부유적에서만 확인되고 판재식목관묘로 일변된다. III 단계에 있어 판재식목관으로 변화되는 것 또한 이후 목관묘로 변화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도면 2> 영남지역 목관묘 분포도(S=1/700,000)

Ⅲ. 遺蹟의 檢討



<도면 3> 경주 및 주변지역 목관묘유적 위치도(S=1/400,000)

삼한시대 목관묘는 수계를 따라 위치하며, 넓은 벌판이나 얇은 능선상에 조영된다. 크게 경주지역, 울산지역, 영천지역, 대구·경산지역, 김해·부산지역으로 구분된다. 경주지역은 형산강 주변으로 조양동유적, 사라리유적, 황성동유적, 덕천리유적, 인동리유적 등이 조사되었다. 울산지역은 태화강과 인접한 다운동유적, 영천지역에서는 금호강 상류에서 어은동유적과 용전리유적 목관묘가 확인되었다. 대구·경산지역은 금호강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팔달동유적, 예산리유적, 임당유적 등이 조사되었다. 낙동강 하류에서는 다호리유적, 양동리유적, 구지로유적이 조사되었다. 영남내륙지역과 영남남부지역의 문화가 교차되는 지점에 청도 대전리유적²⁸⁾과 밀양 교동유적이 위치한다.

1. 영남내륙지역

영남지역 목관묘는 크게 영남내륙지역과 영남남부지역으로 구분되며, 영남내륙지역은 판재식목관묘의 사용이 높고, 예산리유적·사라리유적 등에서 철기의 부장이 확인되나 그 비중이 남부지역에 비해 적다.

1) 慶州 朝陽洞遺蹟²⁹⁾

조양동유적은 울산에서 경주로 가는 7번 국도와 인접하여 위치하며, 동해남부선을 따라 북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형제봉(해발 290m)이 솟아있는데 그 남쪽자락(해발 214.8m) 경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경주시 조양동 627-634-641번지에 해당하며, 유적은 낮은 구릉지상에 동-서로 넓게 축조되었다.

1977년 11월 주택을 개축하기 위해 기존의 가옥을 철거하고 집터를 고르던 중 유개대부장경호 등 20여점의 유물이 우연히 발견됨으로써 유

28) 2006년 성립문화재연구원의 발굴조사에서 삼한시대 목관묘 1기가 조사되었다.

29) 國立慶州博物館, 『慶州 朝陽洞 遺蹟Ⅱ』, 2003.

적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1979년부터 1983년 까지 모두 5차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목관묘 29기, 목곽묘 16기, 옹관묘 17기, 석곽묘 7기, 수혈유구 3기 등 총 77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생활유적과 함께 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형식의 분묘들이 함께 분포하고 있어서 경주지역 선사와 고대의 문화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목관묘 중 유물이 없거나 경식 등 단계별 시기구분이 모호한 목관묘를 제외하고, 묘광의 면적산출이 가능한 17기의 목관묘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3> 조양동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유구 내용	단계	묘광규모(cm)			묘광 면적(m ²)	목관규모(cm)		목관 면적(m ²)	목관종류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5호	I	205	80	130	1.64	140	50	0.7	통나무
13호		197	89	62	1.75	·	·	·	통나무
11호	II	242	121	169	2.93	205	50	1.0	판재식
28호		276	130	155	3.58	202	49	0.9	판재식
38호		258	128	150	3.3	190	65	1.2	판재식
52호		260	94	117	2.44	200	45	0.9	·
58호		226	96	130	2.16	·	·	·	·
18호		270	115	101	3.1	202	55	1.1	판재식
20호	III	280	130	35	3.64	200	90	1.8	판재식
23호		265	118	102	3.13	198	51	1.0	판재식
31호		295	115	101	3.39	181	55	0.9	판재식
35호		270	122	90	3.29	180	57	1.0	판재식
36호		251	122	115	3.06	191	47	0.8	판재식
41호		253	152	31	3.84	·	·	·	·
45호		271	107	63	2.89	232	57	1.3	판재식
47호		275	108	83	2.97	210	62	1.3	판재식
60호		409	170	115	6.95	285	80	2.2	판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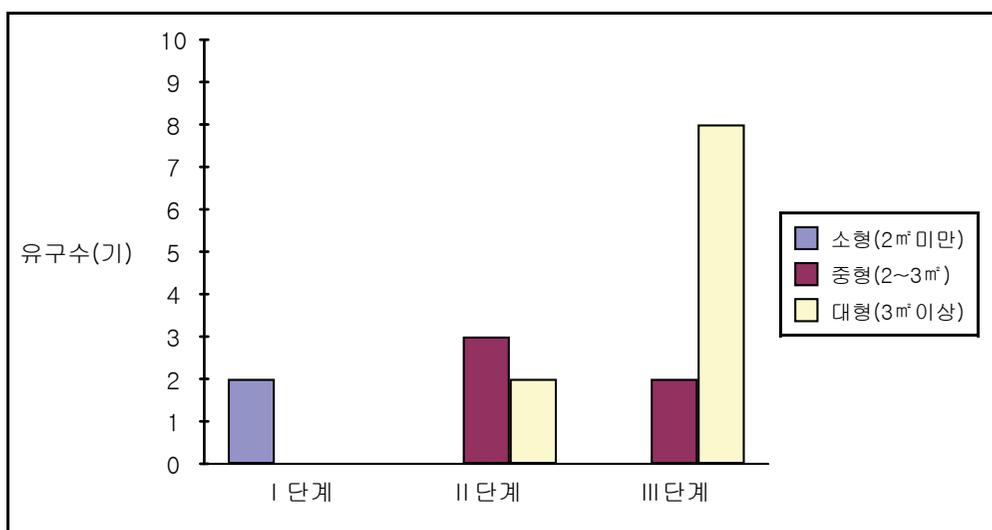
적석된 목관묘는 5호³⁰⁾ 1기이며, 목관은 대부분 부식되어 형태를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토층에서 확인되는 양상으로 볼 때 II단계 이후 통나

30) 조양동5호 목관묘는 묘광을 넓게 상단 굴광한 후 목관을 안치할 부분을 수직 굴착하였다. 목관 면적은 하단 굴광된 제원을 사용하였다.

무관은 사라지고 관재식목관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승문타날 된 토기가 출토된 목관묘는 28·36·38·60 등 4기이며, 격자타날 된 토기가 출토된 목관묘는 18·20·23·31·35·47 등 6기이다. 36·60호 목관묘의 경우 승문타날 된 조합우각형파수부호, 단경호가 출토되었으나 유물 기형에 있어 사라리 130호보다 후행하는 형태이므로 Ⅲ단계에 편입시켰다.

조양동유적의 단계 구분이 가능한 목관묘는 I 단계 2기, II 단계 5기, III 단계 10기 등 17기이다.



<삽도 1> 조양동유적 목관묘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조양동 목관묘 17기를 분석한 결과 소형은 I 단계에서만 확인되고, II 단계 이후 묘광면적은 소형은 사라지고, 대형 목관묘의 수가 높아진다.

2) 慶州 舍羅里遺蹟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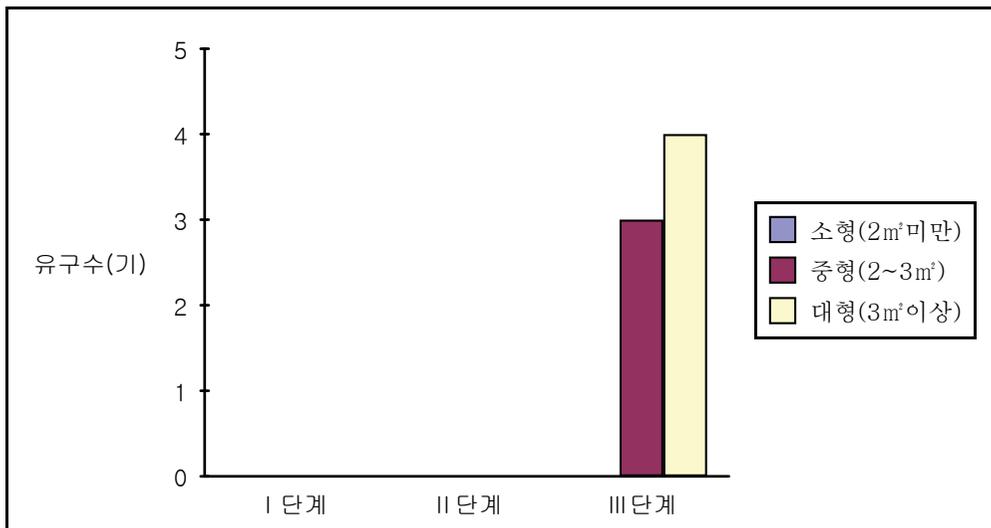
사라리유적은 경주시 서면 사라리 일원의 구릉상에 위치하는 중심고분

31) (財)嶺南文化財研究院, 「慶州舍羅里遺蹟Ⅱ」, 『木棺墓, 住居址』, 2001.

군으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5동과 130호를 포함한 삼한시대의 목관묘 7기, 삼국시대의 목곽묘 67기, 적석목곽묘 43기, 석곽묘 12기, 옹관묘 3기 등 13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³²⁾. 분석대상은 조사된 7기의 목관묘이다.

<표 4> 사라리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내용 유구	단 계	주축방향	묘광(cm)			묘광 면적(m ²)	목관(cm)		목관 면적(m ²)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43호	III	N-82°-E	287	101	(58)	2.89	174	55	1.0
45호		N-81°-E	289	108	(57)	3.12	215	52	1.1
74호		N-89°-E	284	127	(56)	3.60	177	65	1.2
78호		N-62°-E	286	127	(57)	3.3	177	65	1.2
110호		N-57°-E	240	110	(55)	2.64	180	58	1.0
111호		N-78°-E	240	87	(37)	2.08	207	54	1.1
130호		N-68°-E	332	230	100	7.63	205	80	1.6



<삽도 2> 사라리유적 목관묘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삼한시대 목관묘 7기 중 토기가 출토된 유구는 43·78·110·130호 4기이며, 43·78·130호 목관묘에서 호류의 토기에 격자타날이 확인되었다. 목관

32) (財)嶺南文化財研究院, 『慶州舍羅里遺蹟 I - 積石木槨墓 · 石槨墓』, 1999.

묘 단계에서 격자타날 된 토기가 출토된 유구는 진천 송두리 1호, 다호리 64호, 다운동 나-19호 등이 있다. 다운동 나-19호와 同단계인 나-13호에서 이단병식철모³³⁾, 유엽식무경축이 확인되어 대략적인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다호리 64호묘에는 격자타날 된 옹형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들 유구는 공반 유물을 통해 볼 때 사라리 130호보다 늦은 시기에 편년됨으로 영남지역에 있어 격자타날의 시작은 사라리 130호부터이다.

보고자는 사라리 목관묘를 I기와 II기로 구분하고, I기에 해당하는 유구는 45·130호, II기에 해당하는 유구는 43·78·110호로 보았다. I기·II기 모두 격자타날 단계이므로 동일한 III단계로 설정하였다. 세분한다면 I기는 IIIa단계, II기는 IIIb단계가 된다.

위 <삽도 2>에서 알 수 있듯이 사라리유적은 중형 3기, 대형 4기의 목관묘가 확인된다. 대형 목관묘인 130호는 묘광면적이 7㎡이상의 초대형 목관묘이고, 부장유물에 있어 동 시기의 목관묘와 큰 차이가 확인된다. 따라서 피장자는 상위 신분이며, III단계부터 계급간의 위계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3) 慶州 皇城洞遺蹟³⁴⁾

황성동유적은 1985년도에 국립경주박물관에 의해 1기의 목곽묘가 수습 조사 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삼한시대 유적은 1990년도에 국립경주박물관이 주관이 되어 경북대학교 박물관과 계명대학교 박물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의 연합 발굴조사단에 의한 황성동유적의 발굴조사에서 신석기시대, 삼한, 삼국, 통일신라시대까지 매우 다양한 유적들이 밀집되어 남아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1994년도에 황성동 545번지 일대에 대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등의 연합발굴조사에서 목곽묘 52기, 옹관묘 14기, 토광묘 1기

33) 이단병식철모는 2段階(2세기대)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林東材, 앞의 글, 2005, p.78.

34)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 皇城洞 遺蹟 I -강변로 개설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2003.

가 확인되었다.

황성동유적은 형산강과 북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강폭은 350m로 넓어지고 강물이 완만하게 흐르는 지형에 위치한다. 강 양안 줄기 안에 길이 800m, 폭 250m의 넓은 砂丘가 형성되어 있다. 황성동유적은 형산강이 흐르면서 퇴적시킨 해발 30m 내외의 충적대지로서 강의 방향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지형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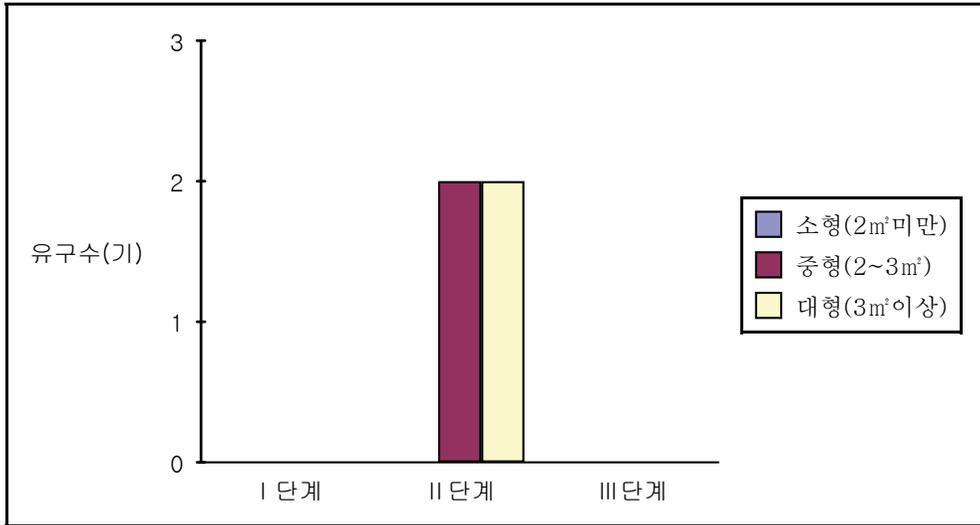
황성동유적에서 단계설정이 가능한 목관묘가 확인된 유적은 강변로유적으로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일대와 용강동의 일부 지역이며 경주분지의 북서쪽에 해당한다. 강변로유적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발굴조사 되었으며, 청동기시대 주거지 9동을 비롯하여 야외노지 1기 등이 조사되었다. 삼한시대 유구로는 목관묘 4기, 집석노 3기, 옹관묘 2기, 수혈 4기가 조사되었으며 삼국시대는 굴립주 건물 3동이 확인되었다.

분석대상은 조사된 삼한시대 목관묘 4기이다.

<표 5> 강변로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내용 유구	단 계	주축방향	묘광규모(cm)			묘광면적 (m ²)	목관규모(cm)		적 석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1호	II	N-71°-W	242	130	(19)	3.14	201	71	
2호		N-78°-W	274	123	(81)	3.37	208	50	○
3호		N-80°-W	253	108	(73)	2.73	183	60	
4호		N-62°-E	260	108	(42)	2.81	207	53	

강변로유적에서 확인된 목관은 모두 판재식목관이며, 2호 목관묘는 20~40cm 정도의 강들을 이용하여 목관을 고정시킨 적석목관묘이다. 4호 목관묘에서 승문타날 된 단경호가 출토되어 II 단계로 구분하였다.



<삽도 3> 강변로유적 목관묘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강변로유적 보고자는 목관묘를 3기로 구분하였다. 2기는 3호 목관묘, 3기는 2·4호 목관묘, 4기는 1호 목관묘로 구분하였으나 2·3·4기 모두 시기차가 커지 않아 II 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 위 <삽도 3>에서 알 수 있듯이 묘광면적이 소형인 목관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형과 대형의 목관묘가 각각 2기씩 확인되었다.

4) 慶州 德泉里遺蹟³⁵⁾

덕천리유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경부고속철도 경주건설구간에 해당하며 행정구역상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일원이다. 유적은 하상 퇴적에 의한 선상지에 유구가 형성되었으며, 경지구획 정리로 원지형이 부분적으로 삭평되었다. 조사지역은 해발 62~63m의 평지를 이루고 있지만 원지형은 형산강이 위치한 동쪽으로 갈수록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석관묘, 삼한시대 목관묘·목곽묘·옹관묘·토기매납유구·불명유구·수혈, 삼국시대 수혈·구·습지·유물포함층·

35) (財)嶺南文化財研究院, 『경부고속철도 건설구간내 慶州 德泉里遺蹟Ⅱ-木棺墓』, 2008.

굴립주건물지,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 조선시대 수혈·굴립주건물지·주혈군 등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형성된 복합유적이다. 삼한시대 목관묘는 중앙(4구역)에 위치하며, 지형적으로 남쪽과 북쪽에 비해 조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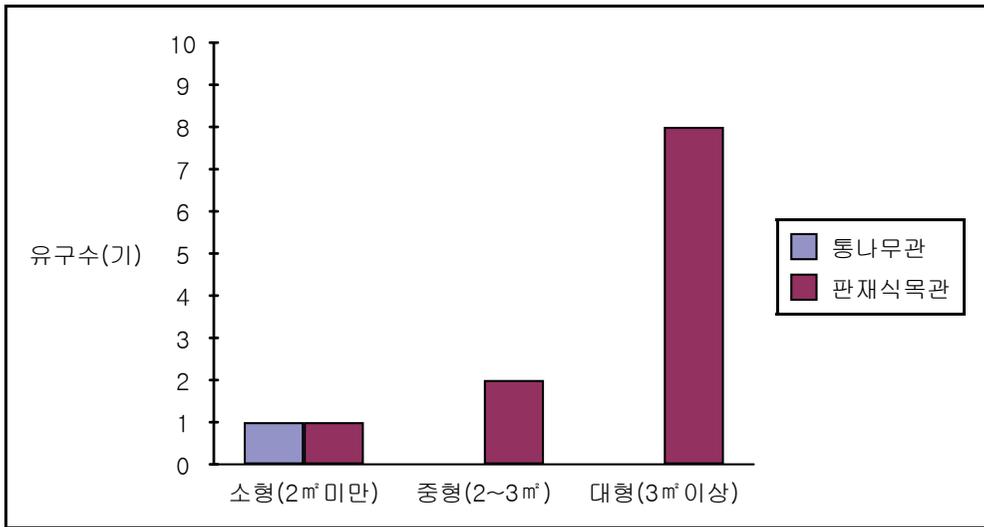
삼한시대 목관묘 14기가 조사되었으나 123·126호 목관묘의 경우 유물이 확인되지 않거나 경식만 출토되어 단계별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형 목관묘인 130·131·132·133·134·136·137·138호는 출토 유물을 통해 볼 때 II단계에 해당하며, 소형 목관묘인 124호에서는 마형대구, 127호에서는 호형대구가 출토되어 대형 목관묘에 비해 소형 목관묘가 시기가 늦다.

호형대구는 사라리 130호에서 출토되었으며, 마형대구는 김해 구지로 42호 석곽묘, 경주 조양동 60호 출토 마형대구와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소형 목관묘는 대형 목관묘에 비해 시기가 늦은 III단계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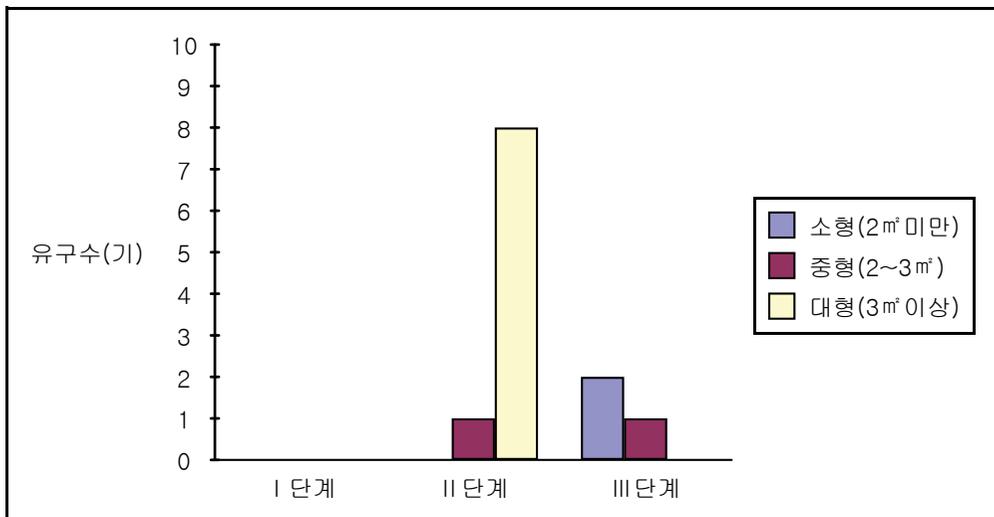
<표 6> 덕천리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유구 내용	단계	주축방향	묘광규모(cm)			묘광면적 (㎡)	목관규모(cm)		목관면적 (㎡)	목관종류
			길이	너비	잔존 깊이		길이	너비		
130호	II	N-50°-E	375	162	94	6.07	269	96	2.6	관재식
131호		N-36.5°-E	321	150	64	4.81	254	96	2.4	관재식
132호		N-55°-E	293	153	125	4.48	249	98	2.4	관재식
133호		N-41°-E	359	178	31	6.39	317	128	4.0	관재식
134호		N-40°-E	330	150	87	4.95	245	87	2.1	관재식
135호		N-37.5°-E	217	108	49	2.34	153	54	0.8	관재식
136호		N-44°-E	275	120	54	3.30	200	44	0.9	관재식
137호		N-43°-E	304	105	59	3.19	232	57	1.3	관재식
138호		N-70°-E	350	150	85	5.25	242	81	2.0	관재식
124호		III	N-87°-E	213	79	33	1.68	173	47	0.8
125호	N-86°-W		267	89	50	2.38	191	58	1.1	관재식
127호	N-87°-E		201	74	44	1.49	184	68	1.3	통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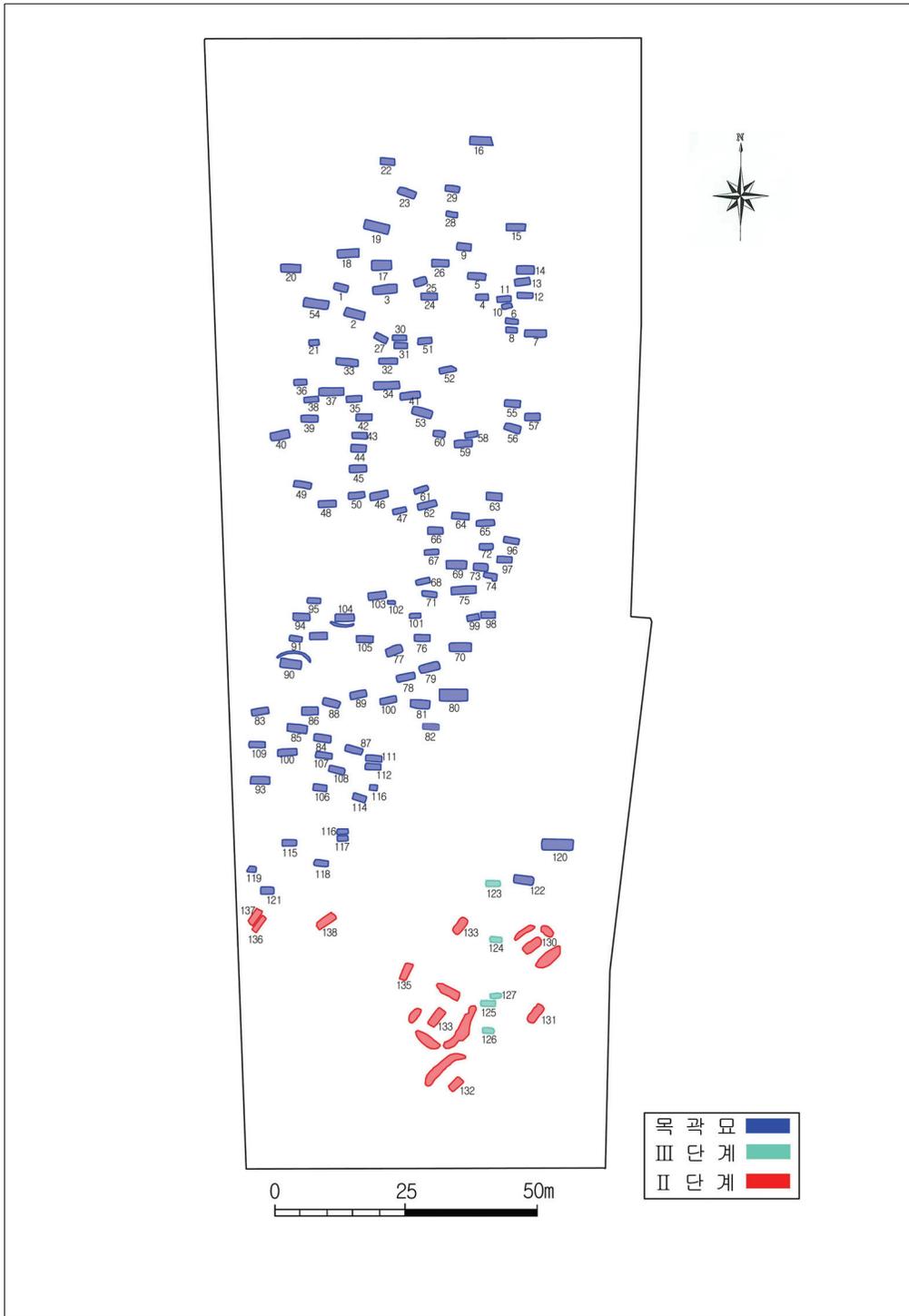


<삽도 4> 덕천리유적 목관묘 목관종류에 따른 도수분포표

덕천리유적 분석대상인 12기의 목관묘 중 통나무관을 사용한 목관묘는 1기, 판재식목관은 11기이다. 통나무관은 소형 목관묘에만 확인되며, 판재식목관은 소·중·대형의 목관묘에서 모두 확인되지만 대형 목관묘에 주로 사용되었다.



<삽도 5> 덕천리유적 목관묘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도면 3> 덕친리유적 유구배치도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덕천리유적은 중·소형의 목관묘와 대형의 목관묘로 구분되며, 보고자는 중·소형의 목관묘가 대형의 목관묘에 후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영남지역 목관묘와 전혀 다른 양상이며, 통나무관 또한 사라지지 않고 Ⅲ단계까지 존속한다. 이는 중·소형의 목관묘에서 토기류가 전혀 출토되지 않고, 유물 부장의 빈도수가 적은 점으로 미루어 Ⅲ단계에 집단의 세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목관묘에 있어 두향은 남쪽 또는 동쪽을 향하며, 장축방향은 등고선방향과 직교하는 반면 목곽묘의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평행하다. 경주 사라리유적 및 대구 팔달동유적 등에서도 동일한 양상이다. <도면 3>의 배치도에서 알 수 있듯이 Ⅲ단계 목관묘는 충적평야에 위치하고 있어 등고선과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거나 장축방향이 목곽묘와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Ⅲ단계부터 덕천리목관묘는 목곽묘적인 요소가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단계별 분석결과 Ⅱ단계는 중형 1기·대형 8기, Ⅲ단계는 소형 2기와 중형 1기로 나타났다. I 단계 목관묘가 확인되지 않고, Ⅲ단계 목관묘의 개체수가 적어 정확한 양상은 파악할 수 없지만 세형동검이 출토된 경주 인동리 1호 목관묘가 길이 245cm, 너비 95cm의 중형 통나무목관묘인 점으로 미루어 묘광규모 차이는 목관의 종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형목관묘의 축조는 묘광을 파고 묘광바닥에 목관(판재식이나 통나무관)을 안치한 다음, 목관과 묘광사이의 빈 공간에는 묘광 굴착시 나온 흙으로 충전하고, 묘광상면에 목개를 얹고, 봉토를 조성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³⁶⁾. 목관묘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주로 1단으로 굴착하였으나 133호묘에서 2단 굴착이 일부 확인된다. 周溝는 대형목관묘에서만 확인되며 ‘一’자형, ‘ㄷ’자형, ‘ㄱ’자형의 단절적인 주구가 확인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주구의 축조양상에서 특이한 점은 주구간의 중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6) (財)嶺南文化財研究院, 『경부고속철도 건설구간내 慶州 德泉里遺蹟Ⅱ-木棺墓』, 2008, p.108.

5) 大邱 八達洞遺蹟³⁷⁾

팔달동유적은 대구지역의 삼한시대 문화를 조명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유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경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처음으로 발굴조사 되어 목곽묘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³⁸⁾. 이후 영남문화재연구원 발굴조사 결과 삼한시대 목관묘 70기, 토광묘 32기, 목곽묘 1기, 옹관묘 139기를 비롯하여 청동기시대 주거지 19동, 삼국시대의 목곽묘가 22기, 석곽(실)묘 32기가 확인되었다. 이밖에 조선시대의 분묘 146기와 기타 유구 8기 등 모두 469기가 조사되었다.

목관묘는 목관의 제작방법에 따라 통나무관과 판재식목관으로 구분되며, 팔달동유적에서 조사된 70기의 목관묘 중 통나무관을 사용한 목관묘는 14기, 판재식목관을 사용한 목관묘가 56기로 통나무관에 비해 판재식으로 결구된 목관묘가 많았다.

적석의 유무에 따라 적석목관묘와 순수목관묘로 구분되며, 목관 상부 또는 측면에 적석된 목관묘가 22기이다.

팔달동유적에서 타날은 단경호에서만 확인된다. 승문타날 단경호가 확인된 유구는 31, 74, 82, 95, 101, 102, 105, 111호 등 모두 판재식목관묘이며, 이중 101호는 묘광 벽면을 할석으로 충전한 판재식목관묘이다.

분석대상은 조사된 70기의 목관묘 중 유물의 단계구분이 모호하고, 묘광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유구를 제외한 52기의 목관묘이다.

<표 7> 팔달동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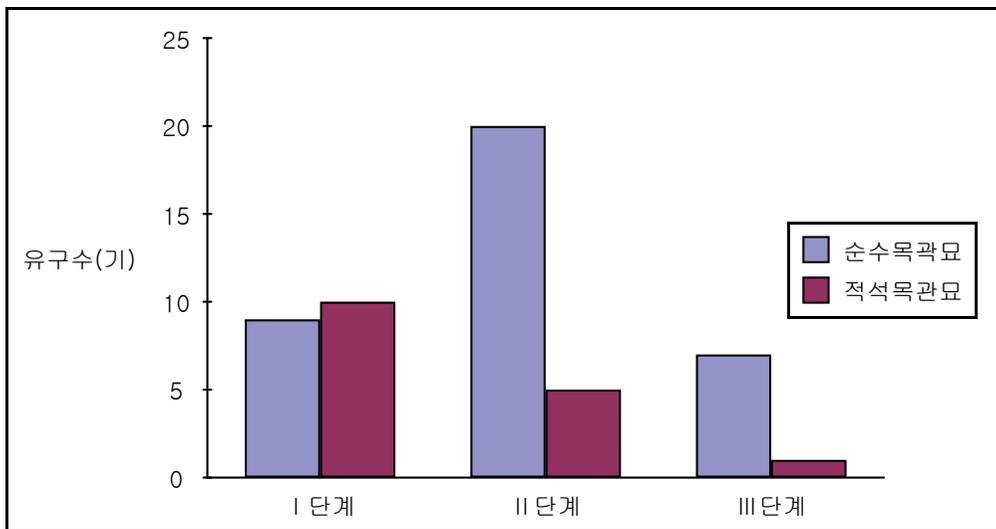
내용 유구	단계	묘 제	묘광규모(cm, m ²)				목관규모(cm, m ³)				적 석	부장 갱
			길이	너비	깊이	면적	길이	너비	높이	면적		
40호	I	a 판재식	191	63	23	1.2	183	50	23	0.9		
41호		b 판재식	222	105	60	2.3	174	46	115	0.8	○	
71호		통나무	225	105	80	2.4	220	·	30	·		
35호		c 판재식	280	145	115	4.1	172	40	35	0.7	○	

37) (財)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八達洞遺蹟 I』, 2000.

38) 경북대학교박물관, 『大邱八達洞遺蹟』,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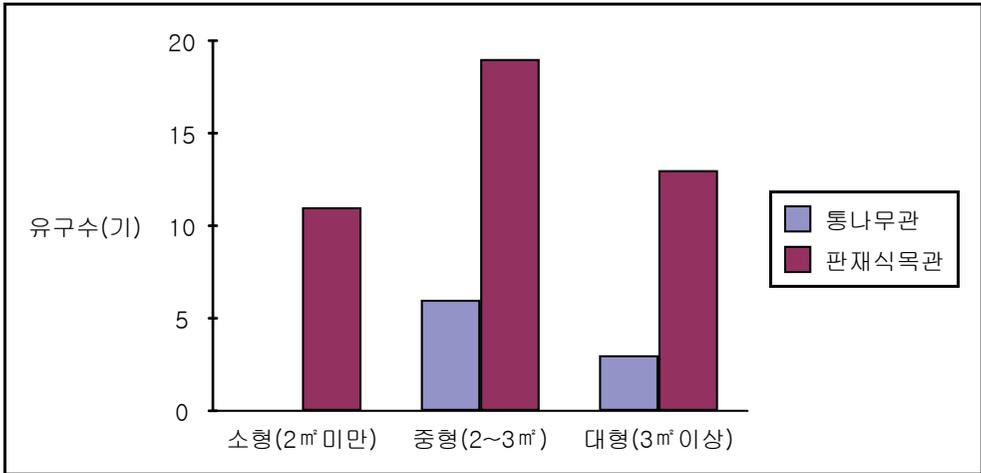
내용 유구	단계	모 제	묘광규모(cm, m ²)				목관규모(cm, m ²)				적 석	부 장 갱	
			길이	너비	깊이	면적	길이	너비	높이	면적			
44호	c	관제식	265	105	50	2.8	195	45	30	0.9	○		
45호		통나무	293	134	155	3.9	215	·	65	·	○		
49호		관제식	210	99	56	2.1	185	53	15	1.0			
52호		관제식	252	104	83	2.6	176	50	42	0.9			
55호		통나무	255	105	80	2.7	185	·	25	·	○		
57호		관제식	250	100	100	2.5	180	45	30	0.8			
58호		통나무	240	95	65	2.3	191	·	43	0.8		○	
63호		관제식	223	100	65	2.2	180	41	26	0.7			
75호		관제식	255	125	96	3.2	185	57	24	1.1			
77호		관제식	260	105	77	2.7	200	47	30	0.9	○		
79호		관제식	242	100	38	2.4	173	47	28	0.8	○		
99호		관제식	300	110	90	3.3	220	50	35	1.1	○		
113호		관제식	196	78	36	1.5	154	42	19	0.6	○		
114호		관제식	216	93	39	2.0	158	53	26	0.8	○		
126호		관제식	204	64	30	1.3	158	40	11	0.6			
30호	a	관제식	240	140	37	3.4	165	67	25	1.1	○		
59호		관제식	222	76	68	1.7	178	45	17	0.8			
60호		관제식	180	60	30	1.1	140	30	15	0.4			
64호		통나무	235	110	70	2.6	180	·	40	·			
78호		관제식	249	110	82	2.6	200	50	26	1.0			
80호		관제식	242	100	53	2.4	195	42	40	0.8	○		
83호		통나무	240	100	90	2.4	195	·	50	1.0			
86호		관제식	240	80	130	1.9	170	42	30	0.7	○		
88호		관제식	320	120	115	3.8	220	40	20	0.9			
90호		통나무	270	90	101	2.4	220	53	31	1.2	○	○	
94호		관제식	229	77	43	1.8	175	38	17	0.7			
100호		통나무	360	145	205	5.2	235	·	60	·			
120호		관제식	220	80	20	1.8	170	45	20	0.8			
26호		b	관제식	242	91	61	2.2	183	50	36	0.9		
28호			관제식	230	84	124	1.9	156	30	58	0.5		
29호	관제식		257	120	56	3.1	195	70	28	1.4			
31호	관제식		234	103	70	2.4	175	45	31	0.8			
37호	관제식		160	66	25	1.1	148	60	15	0.9			
38호	관제식		229	110	80	2.5	181	41	45	0.8			
43호	관제식		223	95	60	2.1	198	50	37	1.0			
47호	관제식		220	87	30	1.9	169	49	15	1.9	○		
74호	관제식		225	125	96	2.8	185	57	24	1.1			
82호	관제식		224	100	55	2.2	210	50	30	1.0			
85호	관제식		280	160	120	4.5	185	52	27	1.0			
101호	관제식		300	120	85	3.6	200	53	25	0.5			

내용 유구	단계	묘 제	묘광규모(cm, m ²)				목관규모(cm, m ²)				적 석	부 장 개
			길이	너비	깊이	면적	길이	너비	높이	면적		
50호	Ⅲ	판재식	299	125	136	3.74	219	59	45	1.3		
95호		판재식	221	90	38	2.0	176	47	20	0.8		
102호		판재식	310	121	88	3.8	208	60	18	1.2		
105호		판재식	247	111	120	2.7	178	111	20	0.2		
106호		판재식	255	130	80	3.3	195	55	30	1.1	○	
107호		통나무	255	127	106	3.2	196	·	37	·		○
111호		판재식	247	165	59	4.1	176	55	25	1.0		
112호		판재식	255	133	63	3.4	193	73	2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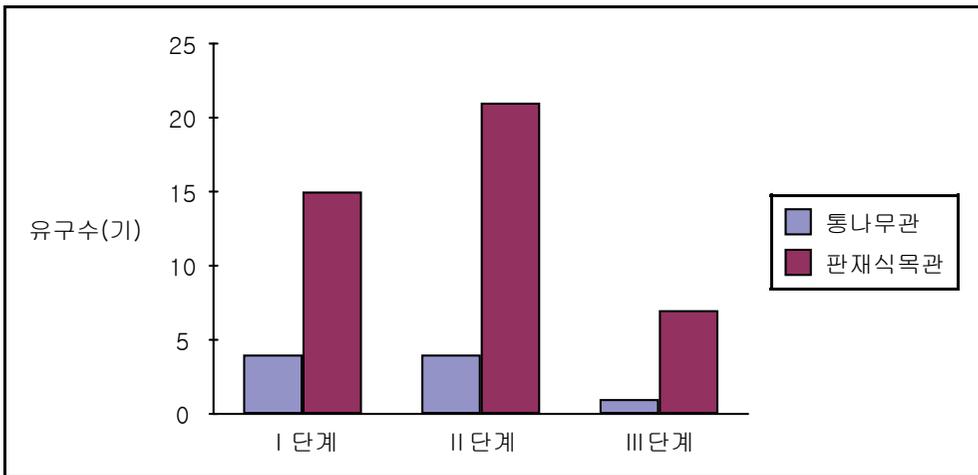
<삽도 6> 팔달동유적 목관묘 적석의 有無에 따른 단계별 도수분포표

적석목관묘는 목관을 안치하고 목관상부 또는 측면에 돌을 채우는 형태이다. 팔달동유적은 목관상부와 充墳石으로 사용된 적석의 형태를 모두 적석목관묘로 구분하였으며, 후기로 갈수록 목관묘에 적석되는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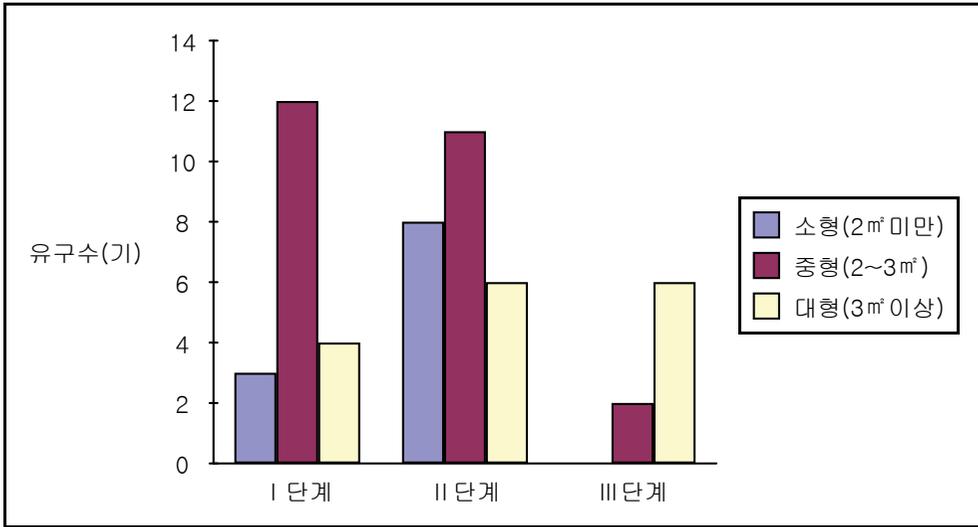


<삽도 7> 팔달동유적 목관묘 목관종류에 따른 도수분포표

52기의 목관묘 중 통나무관을 사용한 목관은 9기, 판재식목관을 사용한 목관묘는 43기로 통나무관 보다 판재식목관이 많았다. 판재식목관은 소형·중형·대형 목관묘에서 모두 확인된 반면 통나무관은 중·대형 목관묘에서만 확인되었다.



<삽도 8> 팔달동유적 목관묘 목관종류에 따른 단계별 도수분포표



<삽도 9> 팔달동유적 목관묘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목관묘를 단계별로 형식분류한 결과 I 단계에서는 중·소형의 목관묘가 많은 반면 목관묘 후기인 III 단계에는 소형의 목관묘가 사라지고 대형 목관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6) 星州 禮山里遺蹟³⁹⁾

예산리유적은 경상북도 성주군 백전리·예산리 일대에 위치하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경북문화재연구원이 발굴 조사하였다. 유적은 5지구로 구분되며 가장 서쪽이 I 지구에 해당한다.

목관묘 1기가 I 지구에서 조사되었으며, 삼한시대 목관묘는 III 지구에서만 41기 확인되었다. II·IV·V 지구에서는 고려~조선시대에 걸친 건물지가 위치한다.

목관묘가 위치하는 III 지구는 조사지구 가운데 중앙부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백전리 378-4번지와 예산리 545-3·4번지에 해당한다. 조사대상

39) (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星州 栢田 禮山里 土地區劃整理事業地區內 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書』, 2005.

지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舌狀臺地로 정상부의 해발고도는 53m 내외이다.

목관묘 41기 중 무문토기만 출토된 유구는 1, 24, 28, 34, 36호 등 5기이며, 무문토기와 와질토기가 공반되어 출토된 유구는 3, 4, 8, 20, 22, 25, 29, 30, 31, 39호 등 10기이다. 와질토기만 출토된 목관묘는 2, 5, 6, 7, 11, 15, 16, 17, 18, 19, 26, 27, 33, 37호 등 14기⁴⁰⁾이다. 4호와 32호는 출토유물의 형식에 따라 Ⅲ단계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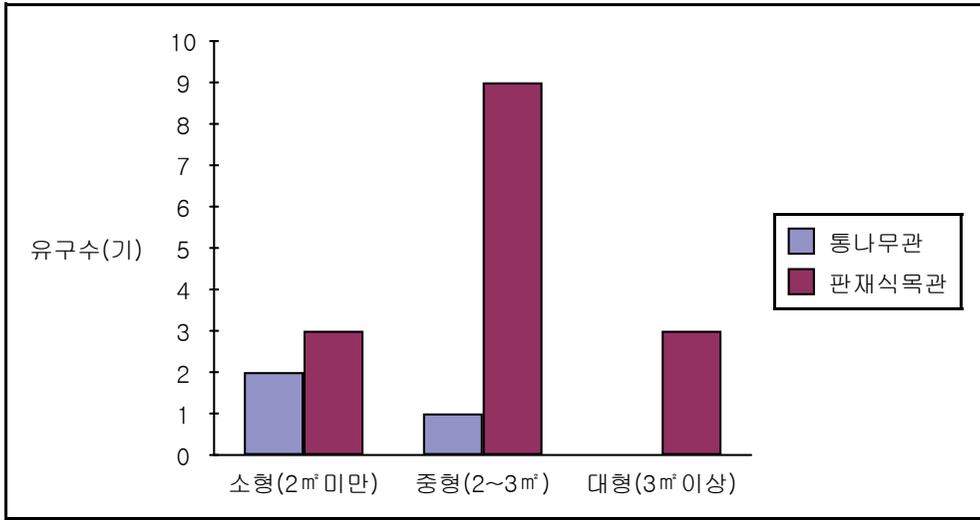
분석대상은 조사된 41기의 목관묘 중 단계구분이 모호하고, 묘광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목관묘를 제외한 25기의 목관묘이다.

<표 8> 예산리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내용 유구	단계	주축방향	묘광규모(cm)			묘광면적 (m ²)	목관종류		
			길이	너비	깊이				
1호	I	b	N-55°-E	230	75	37	1.7	통나무	
24호			N-72°-W	240	90	60	2.2	판재식	
3호	II	a	N-86°-E	262	84	110	2.2	판재식	
8호			N-82°-E	244	80	36	1.9	판재식	
20호			N-82°-E	255	76	73	1.9	.	
22호			N-79°-E	254	98	20	2.5	판재식	
25호			N-74°-E	205	77	45	1.6	판재식	
29호			N-84°-W	255	100	50	2.5	통나무	
30호			N-81°-W	213	90	40	1.9	통나무	
31호			N-86°-W	260	150	115	3.9	판재식	
2호			b	N-86°-E	210	95	8	2.0	판재식
7호				N-80°-E	240	104	30	2.5	.
17호	N-75°-E	301		122	54	3.7	.		
18호	N-70°-W	220		80	60	1.8	.		
19호	N-85°-E	232		100	22	2.3	.		
26호	N-83°-W	225		90	60	2.0	판재식		
33호	N-74°-E	220		85	35	1.9	판재식		
39호	N-72°-W	220		90	35	2.0	.		
4호	III	N-84°-E		277	113	64	3.1	판재식	
5호		N-83°-W	228	104	35	2.4	판재식		
6호		N-84°-W	240	95	105	2.3	판재식		
11호		N-80°-E	290	100	48	2.9	판재식		

40) 6·17호에서는 무문토기편이 상부에서 출토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내용 유구	단계	주축방향	묘광규모(cm)			묘광면적 (m ²)	목관종류
			길이	너비	깊이		
15호	Ⅲ	N-80°-E	303	127	40	3.8	판재식
27호		N-74°-E	220	90	40	2.0	판재식
32호		N-18°-W	290	100	20	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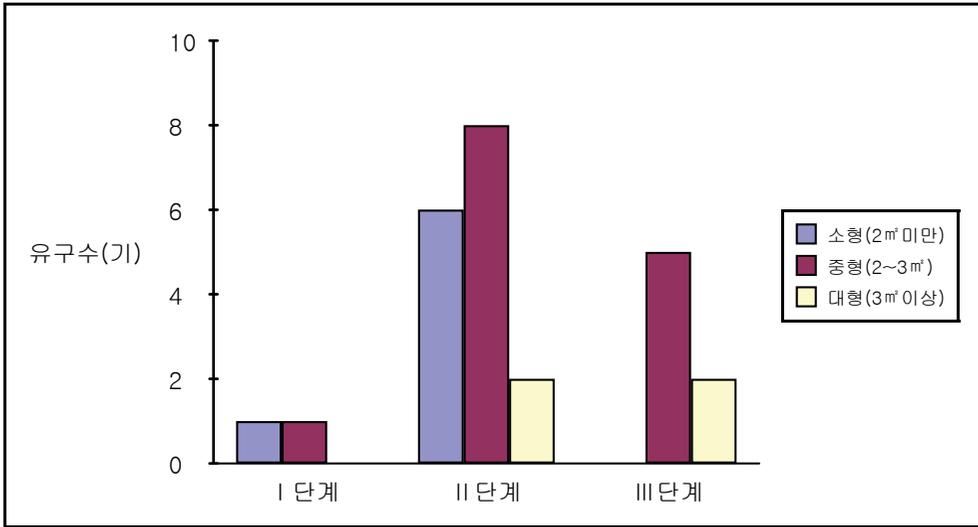


<삽도 10> 예산리유적 목관묘 목관종류에 따른 단계별 도수분포표

예산리유적에서 적석된 목관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목관묘 31호에서는 부장갱을 설치한 후 철검, 철과, 철사, 철부, 농공구, 철모, 철촉, 철착, 도자 등을 부장한 점으로 미루어 상위신분의 피장자로 판단된다.

통나무관을 사용한 목관묘는 1·29·30호 3기이며, 판재식목관을 사용한 유구는 2·3·4·5·6·8·11·15·22·24·25·26·27·31·33호 등 15기이다.

1·29·30호 등 통나무관은 I·II 단계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예산리유적에 있어 통나무관은 III 단계로 오면서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통나무관은 판재식목관에 비해 소형 목관묘에 주로 채택되었다.



<삽도 11> 예산리유적 목관묘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I 단계에 해당하는 1·24호 목관묘 출토 주머니호, 조합우각형과수부호를 형식분류한 결과 예산리유적의 시작은 I 단계부터이며, 3호 목관묘에서 승문타날 단경호가 확인되어 II 단계의 시작으로 구분하였다. 3호 목관묘 출토 단경호는 전환기의 유물과 공반되는 것으로 볼 때 승문타날 단경호 중 고식으로 볼 수 있다.

예산리유적 목관묘를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I 단계에는 대형의 목관묘가 확인되지 않고, III 단계가 되면 소형의 목관묘가 사라지고 대형의 목관묘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 蔚山 茶雲洞遺蹟⁴¹⁾

울산 다운동유적은 울산의 젓줄이라 할 수 있는 태화강과 척과천이 합수하는 지역의 야산 일대에 위치한다. 이 유적은 창원대학교,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울산문화재연구원 등 여러 학술기관에 의한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의 취락에서부터 삼한·삼국시대의 분묘유적, 그리고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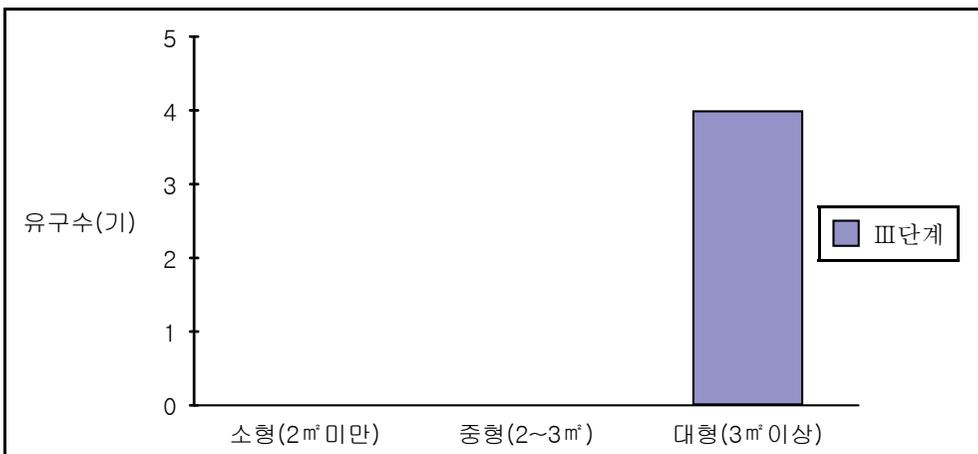
41) 昌原大學校博物館, 「蔚山 茶雲洞遺蹟Ⅱ」, 2006.

선시대 건물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인간이 거주한 복합유적으로 알려져 왔다. 즉 청동기시대에는 구릉의 중, 하위면을 중심으로 방형, 장방형 주거지로 구성된 취락이 존재했었고 삼한시대 전기부터는 울산지역에서는 다소 특이한 주구묘가 등장하면서 통일신라시대까지 집중적으로 분묘군이 형성되어 있다.

다운동유적은 1995년 4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조사한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산174-9, 5번지 일대 약 3,800여평을 발굴조사한 것이다. 발굴조사는 한라주택측에서 민영공동주택 건립사업을 계획한 지역을 대상으로, 창원대학교박물관이 주관이 되어 신라대학교박물관, 울산대학교 사학과와 합동팀을 구성하여 조사 구간을 가, 나, 다, 라구역으로 구획하여 분담 조사하였다. 분석대상은 다운동유적 가·나구역의 주구가 있는 관재식목관묘 4기이다.

<표 9> 다운동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내용 유구	단계	주축방향	묘광규모(cm)			묘광면적 (㎡)	목관규(c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가52호	Ⅲ	N-83°-W	286	132	108	3.77	220	63
가53호		N-85°-W	340	135	117	4.59	275	67
나13호		N-84°-W	363	153	90	5.55	310	109
나19호		N-78°-W	340	120	90	4.08	·	·



<삽도 12> 다운동유적 목관묘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다운동유적에 대한 전체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은 파악할 수 없으나 반타원형의 주구가 확인되고, 나19호 목관묘에서 격자타날 된 조합우각형파수부호의 기형으로 보아 목관묘 후기 단계로 볼 수 있다.

분석된 목관묘는 대형 목관묘로 분류되었다.

8) 慶山 林堂遺蹟⁴²⁾

임당유적에서 조사된 목관묘는 영남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조영동 1B지구에서 3기(4, 7, 8호), 3B지구에서 1기(7호) 등 4기,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F지구에서 10기, G지구에서 4기 등 14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조사된 76기 등 약 94기이다. 그리고 최근 경산 신대리에서 다수의 목관묘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칭하여 임당유적이라 명명한다.

임당유적은 지형상 유적의 동쪽, 중앙, 서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쪽에 해당하는 A, A-I, A-II, C-I, D-IV지구, 중앙에 해당하는 조영 1B, 조영3B, D-II, E지구, 서쪽에 해당하는 F-I·II, G지구 등으로 세분된다.

임당유적은 목관묘 초기 단계인 F I-42호를 비롯하여 I 단계와 II 단계 목관묘가 대부분이다. III단계 목관묘는 임당유적은 C-I-40호 등 소수에 불과하여 단계별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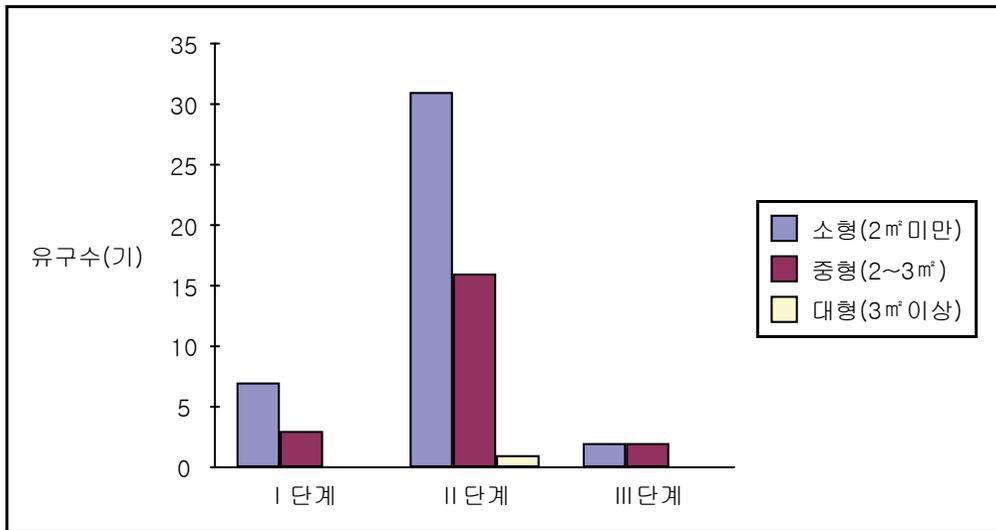
임당유적 94기의 목관묘 중 단계별 형식 분류가 용이하고, 묘광의 면적 산출이 가능한 62기의 목관묘를 단계별로 분류하였다. 조영1B지구 목관묘는 I 단계에 해당하는 목관묘이나 모두 한쪽 벽면이 파괴되어 묘광의 규모를 알 수 없어 제외시켰다.

42)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山 林堂遺蹟 A~E地區 古墳群」, 1998.
嶺南大學校博物館,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III-造永 1B地域-」, 1998.
(財)嶺南文化財研究院, 「慶山林堂洞遺蹟 I-F, H地區 및 土城-」, 1999.

<표 10> 입당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유구	내용	단계	주축방향	묘광규모(cm)			묘광면적 (m ²)	장폭비	
				길이	너비	깊이			
FI-15호		I	N-70°-E	195	86	60	1.67	2.27 : 1	
40호			N-67°-E	205	113	42	2.32	1.81 : 1	
41호			N-80°-E	206	82	45	1.69	2.5 : 1	
42호			N-42°-W	158	60	5	0.95	2.6 : 1	
43호			N-55°-E	212	90	10	1.91	2.3 : 1	
FII-30호			N-8°-E	193	68	21	1.31	2.8 : 1	
31호			N-45°-E	200	100	30	2	2 : 1	
32호			N-86°-W	181	81	25	1.47	2.2 : 1	
33호			N-22°-W	242	75	35	1.81	2.2 : 1	
34호			N-S	214	97	48	2.08	3.2 : 1	
A-11호			II	N-68°-W	210	50	30	1.05	4.2 : 1
A-12호				N-80°-W	212	90	49	1.9	2.4 : 1
A-I-36호				N-74°-W	204	84	36	1.68	2.4 : 1
42호				N-63°-W	200	92	35	1.84	2.2 : 1
49호		N-81°-W		195	71	51	1.38	2.7 : 1	
57호		N-66°-W		207	92	61	1.9	2.3 : 1	
74호		N-59°-W		197	70	22	1.38	2.8 : 1	
76호		N-84°-W		223	75	70	1.67	3 : 1	
79호		N-59°-W		197	70	22	1.37	2.8 : 1	
84호		N-65°-W		215	80	38	1.72	2.7 : 1	
85호		N-52°-W		185	62	44	1.15	3 : 1	
87호		N-63°-W		224	81	36	1.81	2.8 : 1	
89호		N-64°-W		207	71	73	1.47	2.9 : 1	
90호		N-86°-W		222	90	29	2.0	2.5 : 1	
91호		N-69°-W		194	65	22	1.26	3 : 1	
93호		N-55°-W		220	96	20	2.11	2.3 : 1	
96호		N-79°-W		230	78	43	1.79	2.9 : 1	
114호		N-74°-W		260	126	150	3.28	2.1 : 1	
121호		N-69°-W		225	77	122	1.73	2.9 : 1	
122호		N-68°-W		194	69	36	1.34	2.8 : 1	
135호		N-74°-W		262	101	100	2.65	2.6 : 1	
139호		N-74°-W		205	93	32	1.91	2.2 : 1	
140호		N-82°-W		230	98	65	2.25	2.3 : 1	
147호		N-75°-W		220	71	57	1.56	3.1 : 1	
148호		N-66°-W		217	92	45	2.0	2.4 : 1	
150호		N-64°-W		214	86	40	1.84	2.5 : 1	
A-II-4호		N-82°-W	210	70	22	1.47	3 : 1		
C-I-40호		N-63°-W	164	34	15	0.56	4.8 : 1		
E-3호		E-W	210	80	65	1.68	2.6 : 1		

7호	II	N-74°-W	240	100	60	2.4	2.4 : 1
17호		N-60°-W	220	100	60	2.2	2.2 : 1
23호		E-W	220	85	40	1.87	2.6 : 1
28호		N-86°-W	200	80	65	1.6	2.5 : 1
34호		N-68°-W	235	90	90	2.1	2.6 : 1
58호		N-88°-W	245	90	80	2.2	2.7 : 1
62호		N-63°-W	210	75	45	1.57	2.8 : 1
82호		N-78°-W	205	80	70	1.64	2.5 : 1
91호		E-W	250	95	80	2.37	2.6 : 1
94호		N-78°-W	235	85	105	2.0	2.8 : 1
106호		N-67°-W	210	80	55	1.68	2.6 : 1
109호		E-W	190	80	5	1.52	2.4 : 1
118호		N-80°-W	220	80	25	1.76	2.8 : 1
122호		E-W	240	90	85	2.16	2.7 : 1
124호		N-85°-W	250	80	60	2	3.1 : 1
132호		E-W	230	90	50	2.07	2.6 : 1
138호		E-W	240	80	40	1.92	3.0 : 1
G-14호		N-81°-W	227	90	130	2.04	2.5 : 1
132호	N-76°-W	217	97	30	2.1	2.2 : 1	
C-I-29호	III	N-87°-E	268	78	27	2.09	3.4 : 1
33호		N-76°-W	203	79	14	1.6	2.6 : 1
40호		N-63°-W	164	34	15	0.5	4.8 : 1
94호		N-78°-W	235	85	105	2.0	2.8 : 1



<삽도 13> 임당유적 목관묘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임당유적에서 목관이 확인된 유구 중 통나무관은 A-I-114호가 유일하며, FII-30·31·34호, G-14호에서 결구된 판재식목관이 확인되었다. 판재식목관이 확인된 묘광의 규모가 2m² 내외인데 반해 통나무관은 3m² 이상으로 판재식목관에 비해 규모가 크다. 임당유적은 중형 목관묘가 많았으며 단계별 묘광규모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2. 영남남부지역

1) 義昌 茶戶里遺蹟⁴³⁾

다호리유적은 7차에 걸쳐 조사가 되었다. 1·2차 발굴조사에서 12기, 3·4차에 15기, 5·6차에 15기, 7차 발굴조사에서 26기 등 총 68기의 목관묘가 조사되었다.

<표 11> 다호리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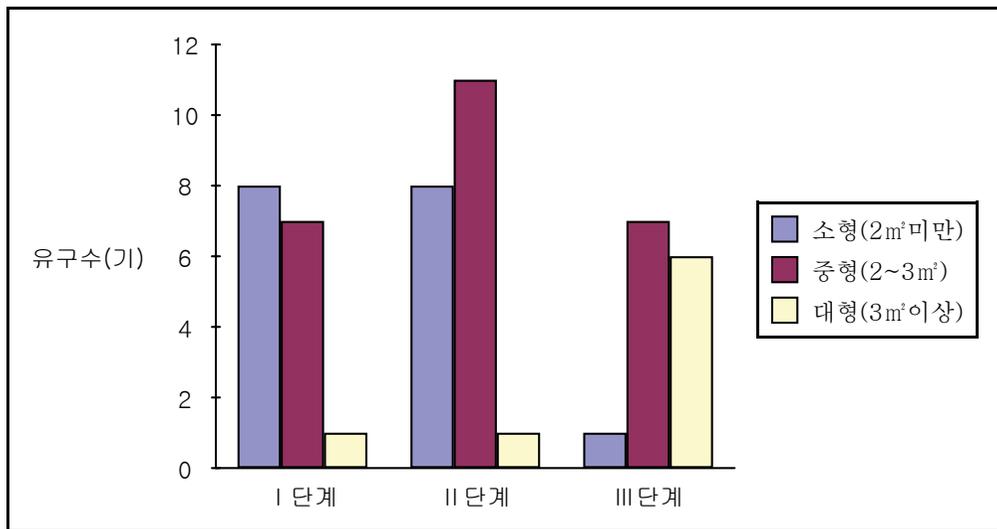
내용 유구	단계	묘광규모(cm, m ²)				목관규모(cm, m ²)			목관 종류	부장갱
		길이	너비	깊이	면적	길이	너비	면적		
6호	I	260	125	150	3.2	·	·	·	통나무	
12호		200	64	40	1.3	·	·	·	통나무	
15호		245	100	75	2.4	210	76	1.6	통나무	○
16호		210	75	39	1.6	·	·	·	·	
18호		213	100	90	2.1	·	·	·	·	
21호		200	70	60	1.4	·	·	·	·	
28호		202	80	80	1.6	148	55	0.8	통나무	
34호		250	83	79	2.1	200	57	1.1	통나무	
41호		202	75	26.5	1.7	·	·	·	·	
42호		220	95	155	2.1	195	456	·	·	

43) 李健茂 外,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 『考古學誌』第1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87.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I)」, 『考古學誌』第3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89.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II)」, 『考古學誌』第5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3.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V)」, 『考古學誌』第7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5.

내용 유구	단계	묘광규모(cm, m ²)				목관규모(cm, m ²)			목관 종류	부장개	
		길이	너비	깊이	면적	길이	너비	면적			
44호	I	198	54	19	1.1	·	·	·	·		
57호		238	88	95	2.1	·	·	·	·		
58호		228	70	40	1.8	185	44	0.8	·		
62호		243	84	18	2.0	196	50	1.0	·		
63호	II	239	88	60	2.1	190	55	1.0	통나무		
72호		225	80	45	1.8	·	·	·	·		
1호		278	136	205	3.8	240	85	2.0	통나무	○	
17호		241	98	134	2.4	·	·	·	·	○	
20호		243	80	85	1.9	·	·	·	·		
24호		277	86	112	2.4	215	84	1.8	통나무	○	
25호		205	95	135	1.9	165	·	·	통나무		
26호		235	85	100	2.0	·	·	·	·		
27호		247	95	85	2.3	186	74	·	·		
29호		205	110	170	2.3	185	·	·	통나무		
33호		240	94	89	2.3	178	62	1.1	·		
35호		250	90	110	2.2	215	58	1.2	·		
37호		210	85	80	1.8	·	·	·	·		
38호		225	67	36.5	1.5	·	·	·	·		
39호		231	67	50	1.5	·	·	·	·		
40호		229	103	140	2.4	·	·	·	·		
43호		230	84	117	1.9	·	·	·	·		
47호		230	98	85	2.3	·	·	·	·		
48호		210	85	75	1.8	·	·	·	·		
51호		210	85	26	1.8	·	·	·	·		
54호		225	100	35	2.2	190	40	0.8	통나무		
59호		219	98	80	2.1	151	47	0.7	·		
22호		III	245	100	140	2.4	·	·	·	·	○
31호			280	130	150	3.6	220	70	1.5	·	
36호			262	104	113	2.7	216	65	1.4	·	
49호			210	70	45	1.5	195	55	1.0	·	
52호	220		90	28	2.0	·	·	·	·		
53호	290		90	55	2.6	·	·	·	·		
56호	270		110	120	3.0	·	·	·	·		
64호	315		145	30	4.5	196	46	0.9	·		
66호	250		120	130	3.0	·	50	·	관재식		
67호	226		113	70	2.6	150	50	0.7	·		
68호	210		95	45	2.0	150	50	0.7	·		
69호	245		100	50	2.4	200	47	0.9	·		
70호	250		120	120	3.0	195	45	0.9	·		
71호	337		140	110	4.7	200	60	1.2	·		

다호리유적은 정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불가능하지만 단계설정 가능한 목관묘 50기를 분석하였다.

29호 목관묘에서 승문타날 된 단경호가 출토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I 단계와 II 단계로 구분하였다. I 단계 16기, II 단계 20기, III 단계 14기의 목관묘이다.



<삽도 14> 다호리유적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다호리목관묘는 소형·중형·대형 목관묘로 구분되었으며, I·II 단계에는 중·소형의 목관묘의 비중이 높은 반면 III 단계가 되면 소형 목관묘가 줄어들고 대형의 목관묘가 증가한다. 이는 시간적 속성에 의한 묘광의 규모차가 일정부분 반영된다고 판단된다.

보고자가 언급하였듯이 묘광의 규모차를 신분의 차로 보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III 단계에 들어서 묘광의 규모가 다변해지고 전반적으로 커지는 것은 부장유물의 증가로 인한 목관묘로의 이행과정 중 하나의 요소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동일한 단계에 있어 묘광의 규모차는 신분의 차이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다호리 목관묘는 대부분 통나무관을 사용하였으며, III 단계부터 판재식

목관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경주 덕천리목관묘와 인동리목관묘를 제외한 영남지역 전체적인 양상처럼 통나무관에서 판재식목관묘로 변화되는 점과 상통한다.

부장갱이 설치된 목관묘 보다는 위세품을 포함하는 목관묘가 전반적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볼 때 부장갱 설치보다는 위세품이 부장된 목관묘를 전반적으로 상위 신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密陽 校洞遺蹟⁴⁴⁾

교동유적은 밀양강에 합류하는 제대천과 주변 구릉 사이의 단구화한 선상지면 내지는 하안단구 저위면에 위치한다. 분석대상은 목관묘 22기이며, 제원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2> 교동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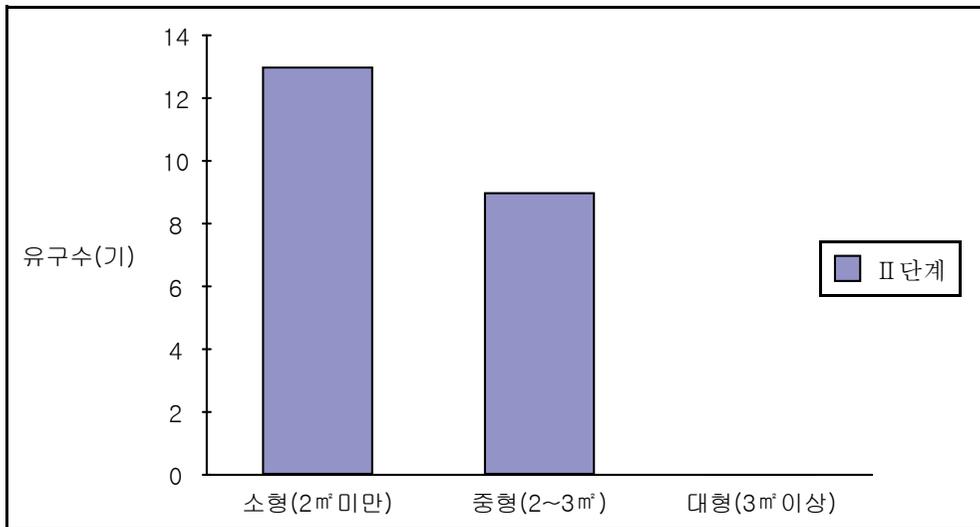
유구	내용	단계	주축방향	묘관규모(cm)			장폭비	묘관면적(m ²)	목관규모		부장갱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1호	II		N-72°-W	209	81	70	2.58:1	1.69	170	68	
2호			N-60°-W	212	74	28	2.86:1	1.57	192	54	
3호			N-80°-W	256	89	50	2.87:1	2.3	212	64	
4호			N-54°-E	203	74	21	2.74:1	1.5	182	66	
5호			N-88°-E	236	98	55	2.65:1	2.3	185	57	
6호			N-81°-E	210	80	47	2.62:1	1.7	184	56	
7호			N-81°-W	210	62	30	3.38:1	1.3	176	52	
8호			N-68°-W	215	82	99	2.62:1	1.76	170	72	
9호			N-74°-W	217	87	104	2.49:1	1.8	180	62	
10호			N-74°-W	239	104	127	2.29:1	2.5	203	72	
11호			N-67°-W	231	93	100	2.48:1	2.14	209	68	
12호			N-65°-W	230	96	153	2.39:1	2.2	186	52	
13호			N-69°-W	243	76	104	3.19:1	1.85	177	45	
14호			N-74°-W	200	81	68	2.46:1	1.6	179	59	
15호			N-56°-W	211	71	40	2.94:1	1.5	176	54	
16호			N-82°-W	226	80	78	2.82:1	1.8	204	52	
17호			N-74°-W	240	102	140	2.35:1	2.45	206	61	○
18호			N-60°-W	235	86	103	2.73:1	2.0	203	59	

44) 密陽大學校博物館, 「密陽校洞遺蹟」, 『밀양시 종합체육시설 건립공사 예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4.

19호	II	N-89°-W	194	85	104	2.28:1	1.6	168	55	
20호		N-87°-W	280	93	109	3.01:1	2.6	215	51	
21호		N-83°-E	243	97	117	2.50:1	2.3	184	56	
22호		N-71°-W	208	72	73	2.28:1	1.5	168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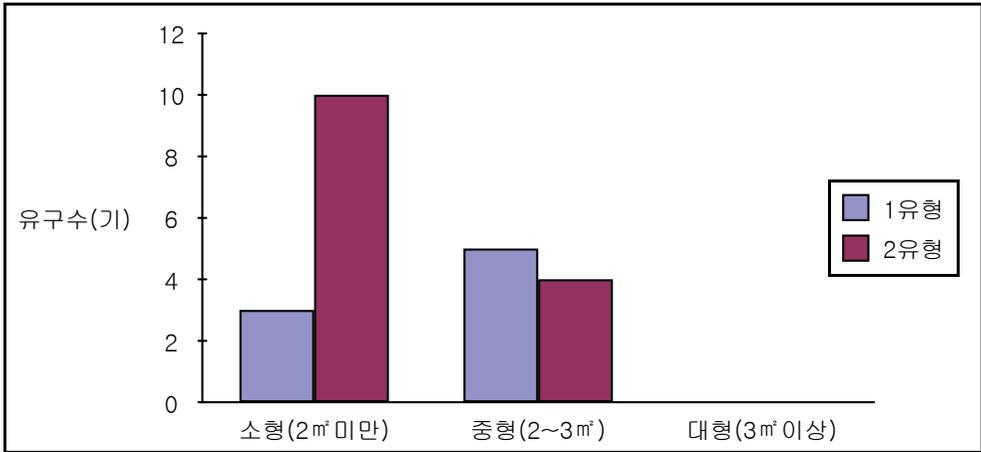
교동유적 목관묘는 3호에서 성운경, 17호에서 소명경이 출토된 것으로 볼 때 기원전·후가 중심연대이다. 성운경은 다호리 1호 목관묘에서 확인되었으며 전술하였듯이 기원전 1세기 후반으로 편년하였다. 소명경은 조양동 38호에서 출토되었으며 절대연대 도출에 표식이 되는 유물로 연대는 기원후 1세기 전반으로 설정하였다. 청동의기는 위세품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전세기간을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거나 토기의 기형이 큰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모두 II 단계에 해당하는 목관묘이다.

목관의 형태가 잔존하는 것은 모두 통나무관인 것으로 볼 때 교동유적 목관묘는 대부분 통나무관으로 추정된다. 적석된 목관묘는 1호, 12호, 15호, 16호 등 4기이다.



<삽도 15> 교동유적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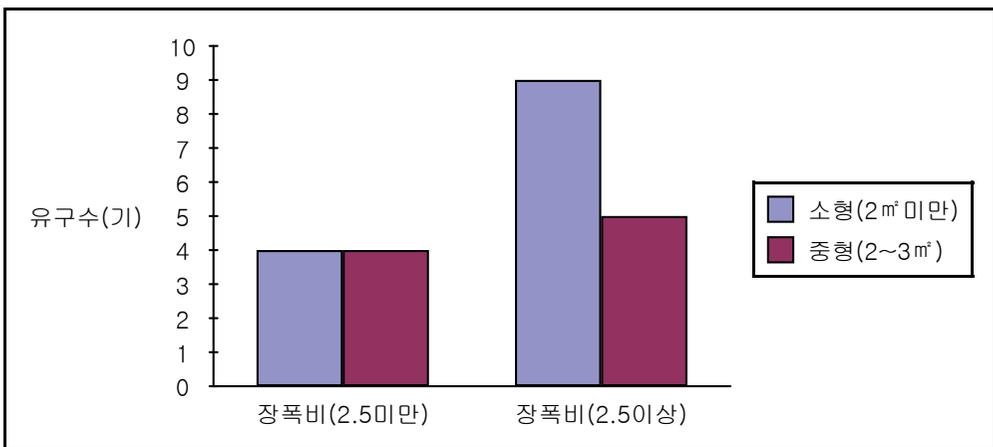
목관묘 22기에 대한 묘광의 면적은 소형 13기, 중형 9기이다. 대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형 목관묘가 전반적으로 많았다.



<삽도 16> 교동유적 위신재有無에 따른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교동유적은 모두 II단계에 해당하므로 시간적 속성에 의한 묘광면적의 차이는 알 수 없다. 묘광면적의 차이가 신분적인 차이인지 확인하기 위해 위신재인 동경, 동검, 철검, 철모 중 하나라도 출토된 3호, 4호, 8호, 10호, 11호, 13호, 17호, 20호는 1형으로 구분하고, 위신재가 출토되지 않은 목관묘는 2형으로 구분하였다. 위신재가 출토된 1형의 경우 중형묘의 비중이 높았지만 소형 목관묘도 확인되었다. 2형의 경우 소형 목관묘의 비중이 높았지만 중형 목관묘도 확인되었다.

소형 목관묘와 중형 목관묘의 장폭비 차이는 아래표와 같다.



<삽도 17> 교동유적 묘광면적에 따른 묘광비 도수분포표

중형 목관묘에 비해 소형 목관묘의 장폭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소형 목관묘가 중형 목관묘에 비해 전반적으로 세장한 것을 알 수 있다.

3) 金海 大成洞遺蹟⁴⁵⁾

대성동유적⁴⁶⁾은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 구릉을 중심으로 주변평지에 위치하며 김해시 중심부에 위치한다. 총 4차에 걸쳐 조사되었으며 1~3차가 고분군 중심이었다면, 4차는 분묘군 중심의 발굴조사이다.

목관묘는 구릉의 북쪽 선단부에서 10기, 주변 제Ⅰ지구에서 2기, 주변 제Ⅱ지구에서 13기, 주변 제Ⅲ지구에서 7기, 주변 제Ⅳ지구에서 2기, 주변 제Ⅴ지구(고분전시관부지)에서 17기, 노출전시관부지에서 5기 등 56기가 조사되었다.

부장갱이 확인된 목관묘 인접한 구지로 12호 목관묘가 유일한 예이며, 대성동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묘광과 목관사이에 적석한 예는 53호, V-1, V-18, V-19호묘 등에서 확인되었다.

목관은 일부 구조가 불확실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평면형태가 ‘ㄹ’자형, 단면형태는 ‘ㅂ’자형의 판재식목관묘만 확인되었다. 청동유물은 노전-67호묘에서 출토된 호형대구가 유일하다. 노전-67호묘는 호형대구 외에 소용과 단경호가 각 1점씩 출토되어 출토유물이 빈약한 편이다. 마형대구가 출토된 구지로 42호 석곽에서도 호형대구 이외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분석대상은 단계설정과 묘광면적 산출이 가능한 26기의 목관묘이다.

45) 慶星大學校博物館, 「金海大成洞古墳Ⅰ-概報-」, 2000.
慶星大學校博物館, 「金海大成洞古墳Ⅱ-13·18·29號墳-」, 2000.
慶星大學校博物館, 「金海大成洞古墳Ⅲ-展示館敷地の發掘調査 및 47·52號墳-」,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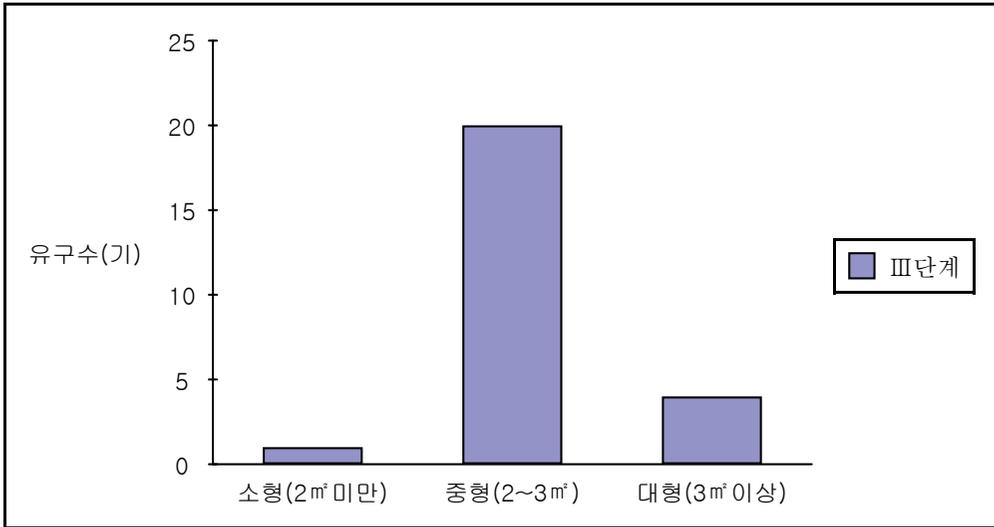
46) I~V는 주변지구, 노전으로 표기한 부분은 노출전시관부지이다.

<표 13> 대성동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내용 유구	단 계	주축방향	묘광규모(cm)			묘광면적 (㎡)	목관규모(c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27호	Ⅲ	동-서	275	100	48	2.75	230	65
53호		동-서	225	100	132	2.25	190	40
I-13호		동-서	260	110	71	2.86	195	55
Ⅲ-1호		동-서	250	100	131	2.5	220	60
V-1호		E-15°-S	245	95	40	2.33	250	40
V-2호		E-5°-N	250	88	37	2.2	210	55
V-3호		E-23°-S	245	120	80	2.94	210	55
V-4호		E-5°-N	310	125	86	3.87	212	52
V-6호		E-20°-S	325	93	40	3.02	240	55
V-8호		E-11°-N	253	104	78	2.63	196	45
V-10호		E-12°-S	266	95	65	2.52	197	55
V-11호		E-14°-S	270	115	63	3.1	215	55
V-12호		N-4°-E	280	100	110	2.8	200	45
V-13호		E-32°-S	250	85	50	2.12	180	50
V-14호		E-11°-N	231	93	19	2.15	200	57
V-15호		E-4°-N	275	100	75	2.75	220	50
V-16호		N-0°-E	275	80	75	2.2	205	50
V-17호		E-2°-S	235	99	42	2.33	216	48
V-18호		E-13°-S	255	101	44	2.57	195	52
V-19호		E-10°-S	243	90	23	2.19	198	56
V-22호		E-26°-S	(210)	77	·	·	·	·
노전-60호		E-12°-S	258	118	89	3.04	·	·
노전-63호		E-23°-S	274	97	40	2.66	198	55
노전-64호	E-25°-S	215	87	54	1.87	162	40	
노전-66호	E-8°-S	230	90	114	2.07	161	50	
노전-67호	E-1°-S	236	110	40	2.6	185	53	

대성동유적은 판재식목관묘로 형식분류가 가능한 유물이 출토된 목관묘는 Ⅲ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목관묘도 Ⅲ단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대성동 목관묘는 Ⅱ단계 목관묘인 다호리와 교동유적이 철기를 중심으로 하는 통나무목관묘인데 반해 판재식목관묘로 변화되며 이는 시기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심지가 다호리에서 대성동으로 옮겨진 것으로 판단된다. 중·대형의 목관묘인 I-13호, V-11호, 노전-60호를 제외하고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거나 1~2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대형 목관묘가 소형 목관묘에 비해 신분적으로 우월하다고는 볼 수 없다.



<삽도 18> 대성동유적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대성동유적 25기의 목관묘를 분석한 결과 묘광면적이 소형 목관묘 1기, 중형 목관묘 20기, 대형 목관묘 4기로 중형의 목관묘가 많았다. 다호리유적과 비슷한 양상이었으나 소형목관묘의 빈도수가 감소하였다. 다호리유적·교동유적은 통나무관을 사용한다 반해 III단계인 대성동유적에서는 통나무관이 사라지고 판재식목관으로 변화되면서 소형 목관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4) 金海 龜旨路遺蹟⁴⁷⁾

구지로고분군은 대성동고분군의 북쪽에 위치한다. 도로명을 원용하여 “구지로고분군”으로 명명하였으나, 실제로는 김해 대성동유적과 연계되는 것으로, 사실상 대성동유적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삼한시대 목관묘는 14기가 조사되었으며, 통나무관은 31·40호 2기이며, 나머지 10기는 판재식목관묘이다. 토기가 출토된 목관묘는 III단계에 해당하지만, 칠기만 공반되거나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목관묘는 정확한

47) 慶星大學校博物館, 「金海龜旨路墳墓群」,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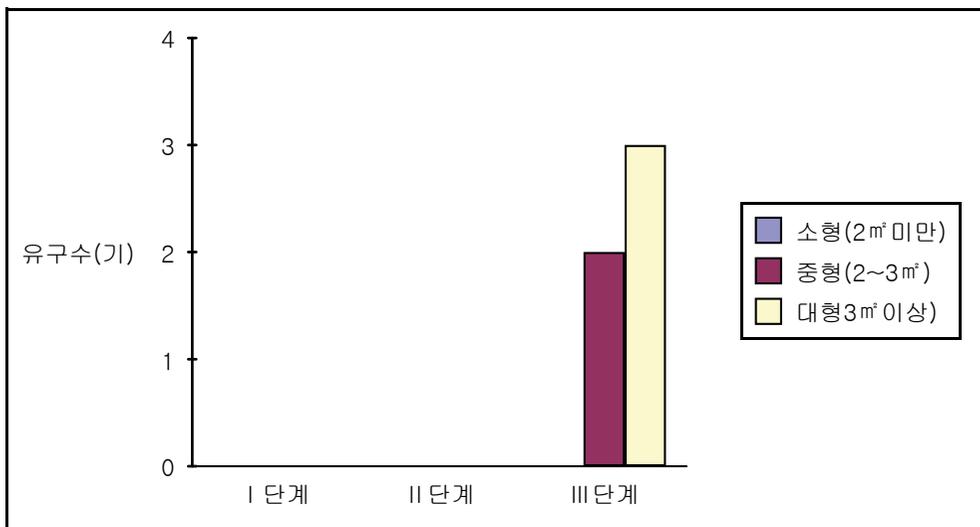
시기를 알 수 없다. 다만 칠기유물이 Ⅲ단계에 공반되는 빈도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이른 시기로 보여 진다.

분석대상은 단계설정이 어려운 10·16·17·31·39·40·45·48호 목관묘와 벽면이 유실되어 묘광의 면적산출이 불가능한 47호 목관묘를 제외한 5기의 목관묘이다.

<표 14> 구지로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내용 유구	단계	주축방향	묘광규모(cm)			묘광면적 (㎡)	목관규모(cm)		목관형 태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7호	Ⅲ	E-6°-S	245	110	68	2.69	195	50	관재식
11호		E-15°-S	270	97	52	2.62	225	53	관재식
12호		E-8°-S	273	120	49	3.28	213	66	관재식
23호		E-4°-S	273	110	90	3.0	214	45	관재식
25호		E-12°-S	285	138	52	3.93	218	58	관재식

구지로유적 단계별 묘광면적은 중형 목관묘 2기, 대형 목관묘 3기이다. 소형 목관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묘광면적이 중·대형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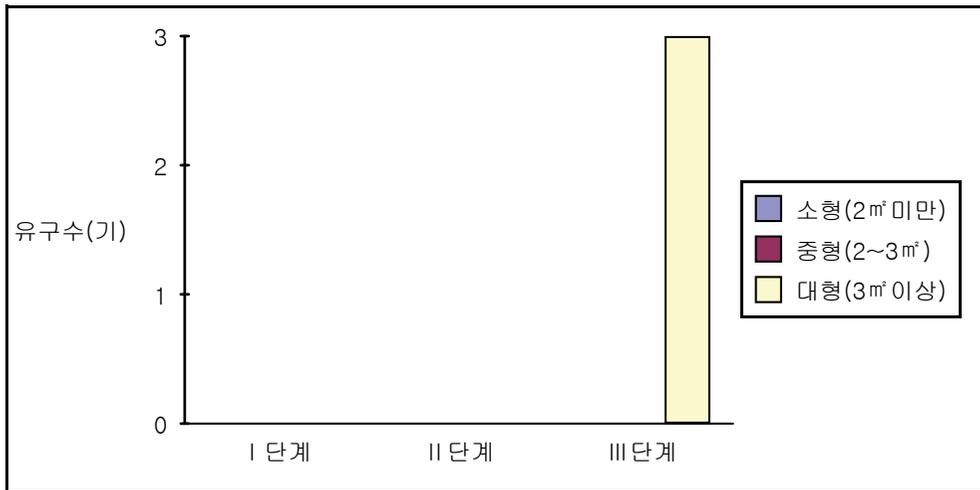
<삽도 19> 구지로유적 목관묘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5) 金海 良洞里遺蹟⁴⁸⁾

양동리유적⁴⁹⁾은 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처음으로 발굴조사 되었으며, 김해의 중심가에서 서남쪽으로 약 4km 남짓 떨어져 있으며 마산으로 가는 남해고속도로 변의 歌谷마을 뒤 야산에 위치해 있다. 정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은 파악할 수 없으나 대표적인 목관묘 검토결과 Ⅲ 단계에 해당하며, 묘광면적이 중형인 목관묘이다.

<표 15> 양동리유적 단계별 목관묘 제원표

내용 유구	단계	묘광규모(cm)			장폭비	묘광면적 (㎡)	목관규모(c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높이
(문)2호	Ⅲ	310	125	157	2.48	3.87	204	64	·
(동)55호		293	125	112	2.34	3.66	243	66	34
(동)427호		230	90	90	2.55	2.07	200	60	30



<삽도 20> 양동리유적 목관묘 단계별 묘광면적 도수분포표

48) 朴敬源, 「金海地方出土青銅遺物」, 『考古美術』第106・107, 1970
 林孝澤, 「洛東江下流 加耶土壙墓研究」, 『韓國考古學報』4, 1978.
 문화재연구소, 『김해 양동리 고분』, 1989.
 東義大學校博物館, 『金海良洞里古墳文化』, 2000.

49)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된 목관묘는 (문), 동의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된 목관묘를 (동)으로 표기하였다.

IV. 목관묘 유물 형식분류

1. 목관묘 출토 토기류 검토

목관묘 출토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로 분류되며 철기류에 비해 토기류가 형식의 변화가 빠르고 다양하다. 토기류 중에서도 조합우각형과 수부호나 주머니호의 기형 변화가 다변한다. 형태 변화가 가장 느린 것은 단경호이나 타날의 변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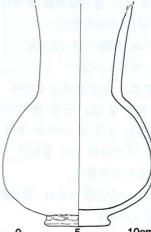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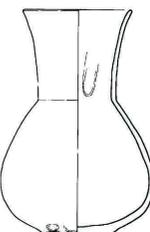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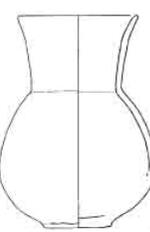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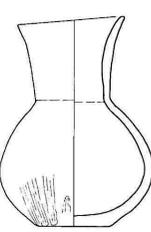
따라서 토기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장경호

장경호는 4형으로 구분된다. 굽상저부→평저로 변화하며, 구연부의 길이는 점차 1형에 비해 줄어든다. 굽의 有無에 따라 굽의 형태가 확인되면 I 단계로 굽이 없는 평저는 II 단계로 설정하였다.

1단계 1·2·3형은 동최대경이 동하위에 처져있고 동최대경 이상이 직선적이어서 동체부의 형태가 삼각형을 이루다가 II 단계 3형부터 동체부는 동최대경이 동하위에서 동중위로 올라오며 삼각형에서 원형으로 변화한다. 구연부의 길이는 후기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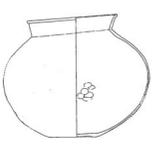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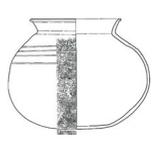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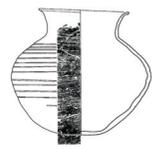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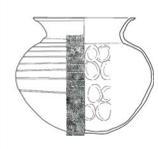
<도면 5> 장경호 단계설정(축척부동)

I 단계			II 단계
1형	2형	3형	3형
 <p>문당동 II-1호</p>	 <p>팔달동 41호</p>	 <p>팔달동 75호</p>	 <p>팔달동 94호</p>

2) 단경호

단경호는 동체의 형태에 따라 장동호로 분류 가능하지만 구연부의 형태로 구분하였다. 타날의 변화가 목관묘 출토 토기류에 비해 빠르게 변화되지만 기형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I 단계에는 타날이 확인되지 않으며, II 단계에는 승문타날, III 단계에는 격자타날로 변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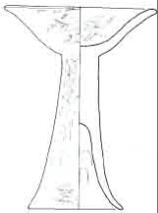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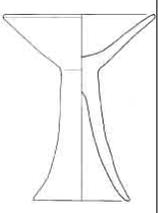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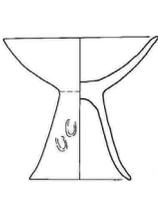
<도면 6> 단경호 단계설정(축척부동)

I 단계	II 단계		III 단계	
1형	3형	4형	5형	6형
				
팔달동41호	임당E-17호	조양동28호	사라리78호	조양동60호

3) 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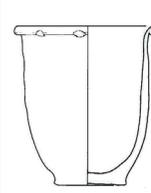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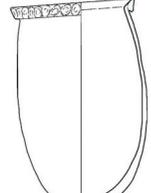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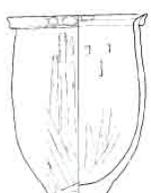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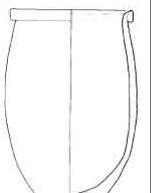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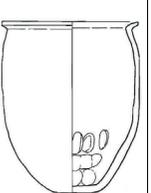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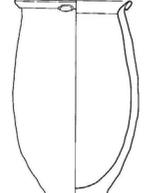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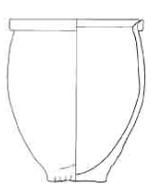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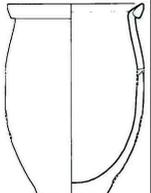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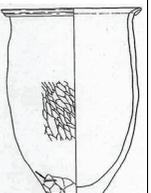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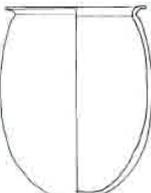
목관묘시기의 고배는 두형토기로 불리며, 3형으로 구분된다. 1형은 대각의 상단이 막혀 있는데 반해 2형은 대각의 상단이 막혀있지 않다. I 단계의 1·2형은 대각이 배신에 비해 길지만 3형이 되면 대각과 배신의 길이가 비슷해진다. 목관묘 출토 고배는 BC. 1세기 전반에 출현하여 장경호와 비슷한 시기에 소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면 7> 고배 단계설정(축척부동)

I 단계		II 단계
1형	2형	3형
		
팔달동77호	팔달동75호	팔달동94호

4) 옹

<도면 8> 옹 단계설정(축척부동)

I 단계			II 단계		III 단계
1형	2형	3형	4형	5형	6형
					
팔달동40호	조양동13호	팔달동39호	팔달동78호	조양동28호	팔달동43호
					
조영1B-7호	팔달동41호	팔달동86호	팔달동90호	임당E-7호	팔달동9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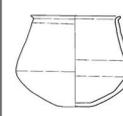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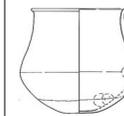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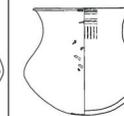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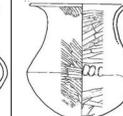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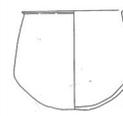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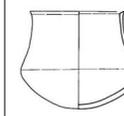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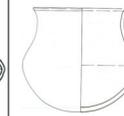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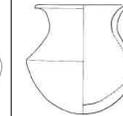
목관묘 출토 옹은 6형으로 구분된다. 저부는 굽상저부→평저→원저로 변화되며, 구연부는 점토대→홀구연으로 변화한다. 점토대는 원형→타원형 또는 삼각형으로 변화한다. 5형부터 무문토기에서 와질토기로 변화하고, 점토띠가 사라진다.

5) 주머니호

목관묘 출토 주머니호는 7형으로 구분된다. 저부는 굽상저부→평저→원저로 변화되며, 동체는 내경하는 각도가 커지다가 5형부터 'S'자형태로 변화하며 점차 만곡도가 커진다.

I 단계에는 점토대토기가 중점적으로 부장되지만 II·III 단계에는 조합우각형과수부호·주머니호 중심으로 변화된다.

<도면 9> 주머니호 단계설정(축척부동)

I 단계		II 단계		III 단계		
1형	2형	3형	4형	5형	6형	7형
						
문당동 II-1호	조양동 5호	예산리25호	조양동 38호	인동리 1호	사라리 130호	사라리 78호
						
예산리 1호	임당 A-I-74호	강변로 3호	팔달동96호	다호리 31호	양동리 55호	

1형은 무문토기이며, 구연에 점토대가 형성되어 있다. 저부는 굽이 있고, 2형은 동체는 장동형이다. 3형은 굽이 퇴화되어 형태만 잔존하거나 들림저부로 변화되는 과도기 단계이다. 동체는 동최대경에서 구연부까지 직립하나 동최대경에 비해 구연부의 폭이 좁다. 4형은 와질토기이며 저부가 평저에서 원저로 변화되며, 동최대경이 돌출되어 삼각형화 된다. 5형부터 돌출된 동최대경 상부가 내만하다 점차 만곡도가 커진다.

6) 조합우각형과수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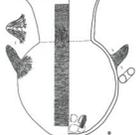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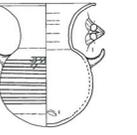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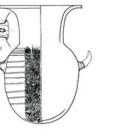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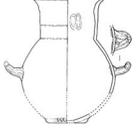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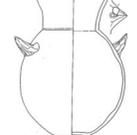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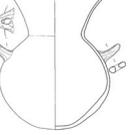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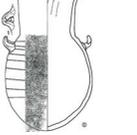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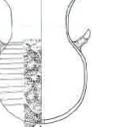
목관묘 출토 조합우각형과수부호는 5형으로 구분되며, 주머니호와 함께 목관묘 출토 유물 중 형태가 다변한다. I 단계에 흑색마연토기이며, II 단계부터 와질토기로 변화된다. 저부는 굽상저부→평저→원저로 변화하며, 동체부는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변화한다. 구연부는 점차적으로 외반하는 범위가 넓어진다.

I 단계에 있어 과수는 동중위에 위치하며, 동체부와 90° 각도로 직립한다. 조양동 5호, 팔달동 45호, 임당 FII-34호 출토 조합우각형과수부호

가 이에 해당하며, II 단계가 되면 동상위로 올라간다.

조합우각형파수부호의 시작은 와질토기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II 단계에 새롭게 출현하는 기종이 아니라 흑도장경호에서 파생되어 I 단계 후반 즉 Ic 단계부터 영남지역 목관묘에 부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면 10> 조합우각형파수부호 단계설정(축척부동)

I 단계	II 단계		III 단계	
1형	2형	3형	4형	5형
 팔달동45호	 예산리31호	 조양동38호	 사라리130호	 사라리78호
 임당FII-34호	 임당E-23호	 예산리18호	 조양동36호	 구지로12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는 목관묘 초기에는 확인되지 않다가 I 단계 후반부터 확인되며 II 단계부터 확인되는 중국계 유물인 한경, 오수전, 칠기가 부장되는 목관묘에 비해 선행하므로 기원을 서북한 지역에서 찾을 수 없다.

1형은 바닥에 굽이 형성된 평저로 동체부는 둥근 형태이다. 동최대경은 동중위에 위치하며, 경부는 구연부까지 직립한다. 파수는 동중위에 위치한다. 2형은 와질토기로 굽이 사라지고, 평저로 변화된다. 구연부가 약간씩 외반되며, 파수는 동중위에서 동상위로 올라간다. 3형은 저부가 원저로 바뀌고, 4형부터 동체가 길어져 장동화된다. 타날의 변화는 주머니호에 비해서는 빠르나 대체로 느린 변화를 보이며, 조양동35호에서 격자타날 된 조합우각형파수부호가 확인된다.

2. 유물단계설정

<도면 11> 토기유물 단계설정

목관묘									목곽묘
I 단계 (BC.200~50年)			II 단계 (BC.50~AD.50年)		III 단계 (AD.50~150年)				IV 단계1 (50년~)
a	b	c	a	b	a		b		a
팔달동 40호	조양동 13호	팔달동 39호	팔달동 78호	조양동 28호	팔달동 43호		팔달동 95호		팔달동 117호
조양 1B-7호	팔달동 41호	팔달동 86호	팔달동 90호	임당 E-7호					
문당동 II-1호	팔달동 41호	팔달동 75호	팔달동 94호						
	팔달동 41호		예산리 3호	조양동 28호			사라리 78호	조양동 60호	조양동 12호
	팔달동 77호	팔달동 75호	팔달동 94호						
문당동 II-1호		조양동 5호	임당 A I-74호	조양동 38호	팔달동 96호	사라리 130호	사라리 78호	양동리 55호	조양동 12호
		임당 F II-34호	예산리 31호	조양동 38호	인동리 1호	사라리 130호	사라리 78호	조양동 33호	
		팔달동 45호	임당 E-23호	예산리 18호		조양동 36호	구지로 12호	다운동 나19호	

V. 맺음말

목관묘는 와질토기 출현이전 무문토기 단계부터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영남지역에 있어 목관묘의 시작은 와질토기 출현 이전으로 판단되며, 역사적 정황으로 보아 기원전 2세기를 전·후하여 유이민의 남하 과정에서 융화되어 확산된 묘제로 보았다.

목관묘는 타날의 종류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I 단계-무문토기 단계, II 단계-와질토기 승(석)문타날단계, III 단계-와질토기 격자타날단계로 구분된다. 무타날→승문타날→격자타날로 변화한다. 승문타날은 영남 지역에서 와질토기와 함께 출현하며, 격자타날 등장 이후 목관묘에 있어서 목곽묘적인 요소가 확인된다. 목관묘에서 타날의 발전은 변화를 가져오며, 하나의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I 단계에는 중국계유물이 출토되지 않다가 II 단계에 들어서 오수전, 칠기, 전한경 등 중국계 유물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I 단계는 한사군 설치 이전으로 판단되며, 하한은 기원전 1세기 전반이다. II 단계는 기원전 1세기 중반에서 기원전 1세기 중반까지이며, III 단계는 영남지역에 목곽묘가 등장하는 2세기 중반까지이다.

영남지역에서 가장 빠른 단계의 격자타날은 사라리 130호이며,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기원후 1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경주지역에서 격자타날 된 토기가 출토된 사라리 130호나 III 단계에 해당하는 조양동 60호의 경우 묘광의 면적이 7㎡이상의 초대형으로 바뀌며, 부장유물 또한 기존의 목관묘와는 수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는 III 단계부터 묘광의 크기나 유물의 부장양상에서 위계화가 시작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덕천리목관묘는 III 단계부터 장축이 남서-북동(N-37.5°~70°-E) 방향에서 동-서(N-84°~89°-E) 방향으로 이후 단계의 목곽묘와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은 III 단계 이후 목곽묘적인 요소가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목관 제작방법에 따라 통나무관과 판재식목관으로 구분하였으며, 그동안 통나무관이 판재식목관에 비해 선행하며, 상위신분의 목관으로 인식되

어 왔으나 분석결과 신분적인 차이가 아닌 지역적인 차이로 판단된다. 영남내륙지역에 비해 영남남부지역에 통나무관의 비중이 높고, 통나무관은 점차 감소하나 Ⅲ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져 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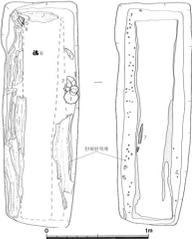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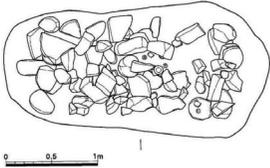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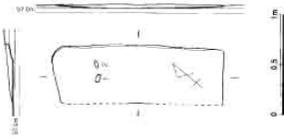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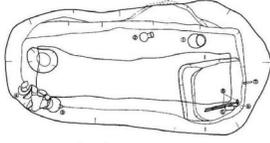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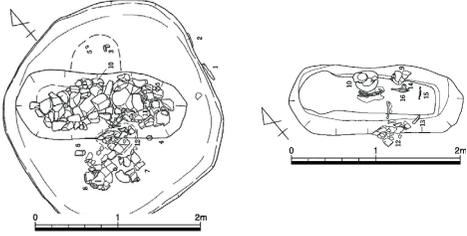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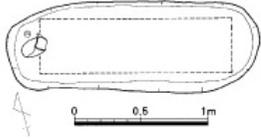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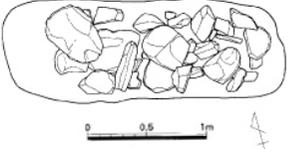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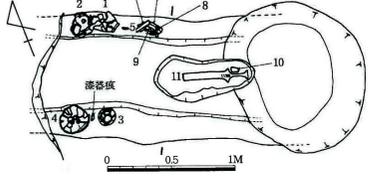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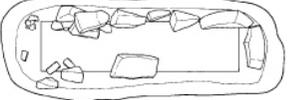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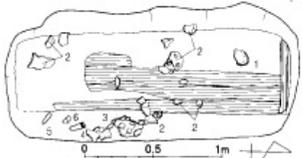
묘광의 규모는 통나무관에 비해 판재식목관묘가 대체로 크며, 후기로 갈수록 소형의 목관묘는 감소하고 대형의 목관묘가 증가한다. 이는 부장유물의 증가에 따른 부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목곽묘 단계에는 늘어난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곱이 생겨난다고 보아야 한다.

영남지역에서 통나무관은 격자타날 단계부터 비중이 감소한다. 이는 Ⅲ단계부터 묘광의 면적이 대형인 목관묘가 증가함에 따라 통나무관은 목재의 수급이나 제작에 따른 크기의 제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선택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나무관의 사용은 청동기시대 거석을 옮기는 공동체적인 제사의례와 유사한 행위이며, 격자타날이 등장하는 시기부터 통나무관이 점차 감소하는 것은 이 시점에 제의행위 또한 변화되었을 것이다. 사라리 130호의 부장유물 위치를 통해 이 단계부터 특별한 제의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다⁵⁰⁾. 적석목관묘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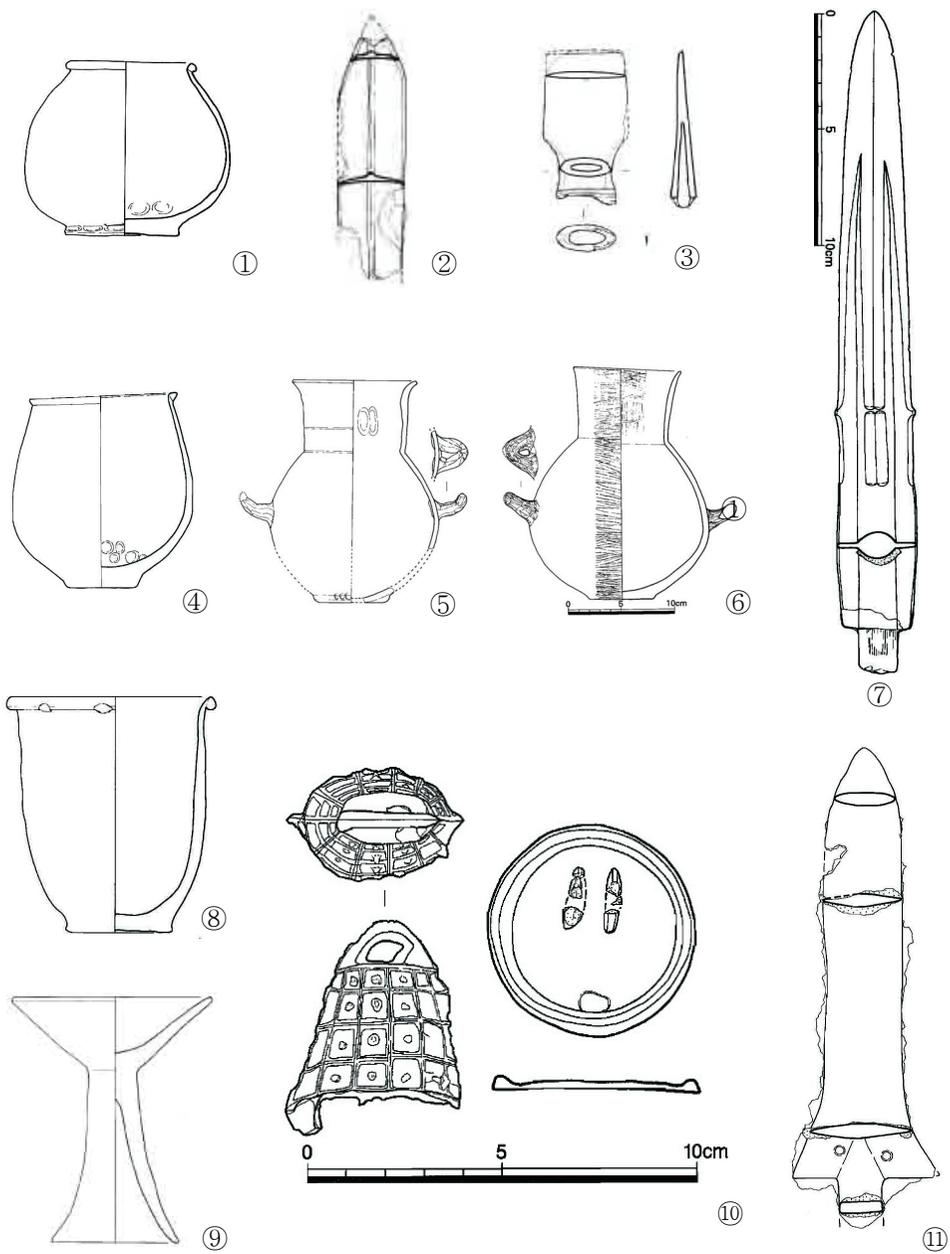
지금까지 목관묘에 있어 묘광규모와 목관종류의 차이를 단위 유적을 통해 단순히 위계로만 보았으나 영남지역 전체를 통해 볼 때 단계별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영남내륙지역은 판재식목관묘가 우세하고, 영남남부지역은 통나무관목관묘가 우세하며 칠기의 부장이 많다. 목관묘 후기로 갈수록 소형의 목관묘가 줄어들고 대형의 목관묘가 늘어난다. 이는 부장유물의 증가에 따른 부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부장유물의 증가는 Ⅲ단계부터 위계화가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목곽묘는 고식도질토기와 함께 2세기 중반 이후에 획일적으로 나타나는 묘제가 아니라 목관묘 Ⅲ단계(격자타날)부터 점차 변화되어 목관묘와 목곽묘의 공존기를 거쳐 점차적으로 목곽묘로 발전했을 것이다.

50) 河眞鎬, 「慶州 舍羅里 130號墓에 대한 考察 - 발굴조사와 그 성과를 중심으로」, 『사로국사기의 경주 무덤과 지역집단』, 제34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2006, pp.1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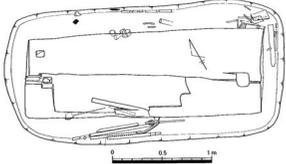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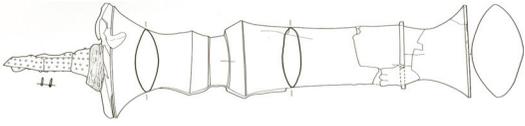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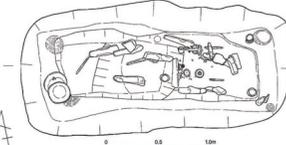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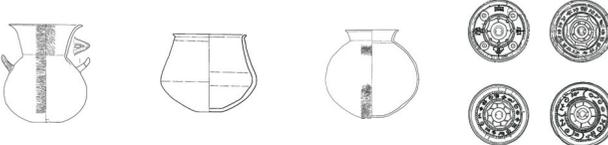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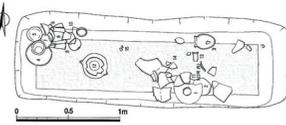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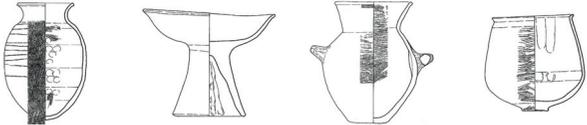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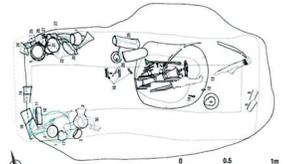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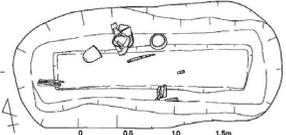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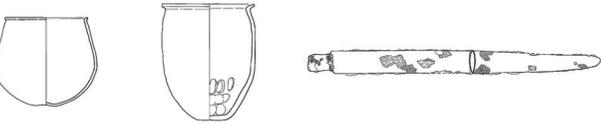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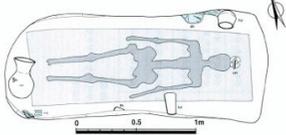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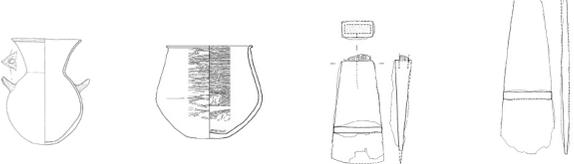
적석목관묘	순수목관묘
	
<p>월성리 1호</p>	<p>문당동 II-1호</p>
	
	<p>임당 FI-42호</p>
<p>팔달동 45호</p> 	
<p>조양동 5호</p>	<p>팔달동 40호</p>
	
	<p>조양동 1B-7호</p> 
<p>팔달동 86호</p>	<p>임당 FII-34호</p>

<도면 12> I 단계 목관묘 평면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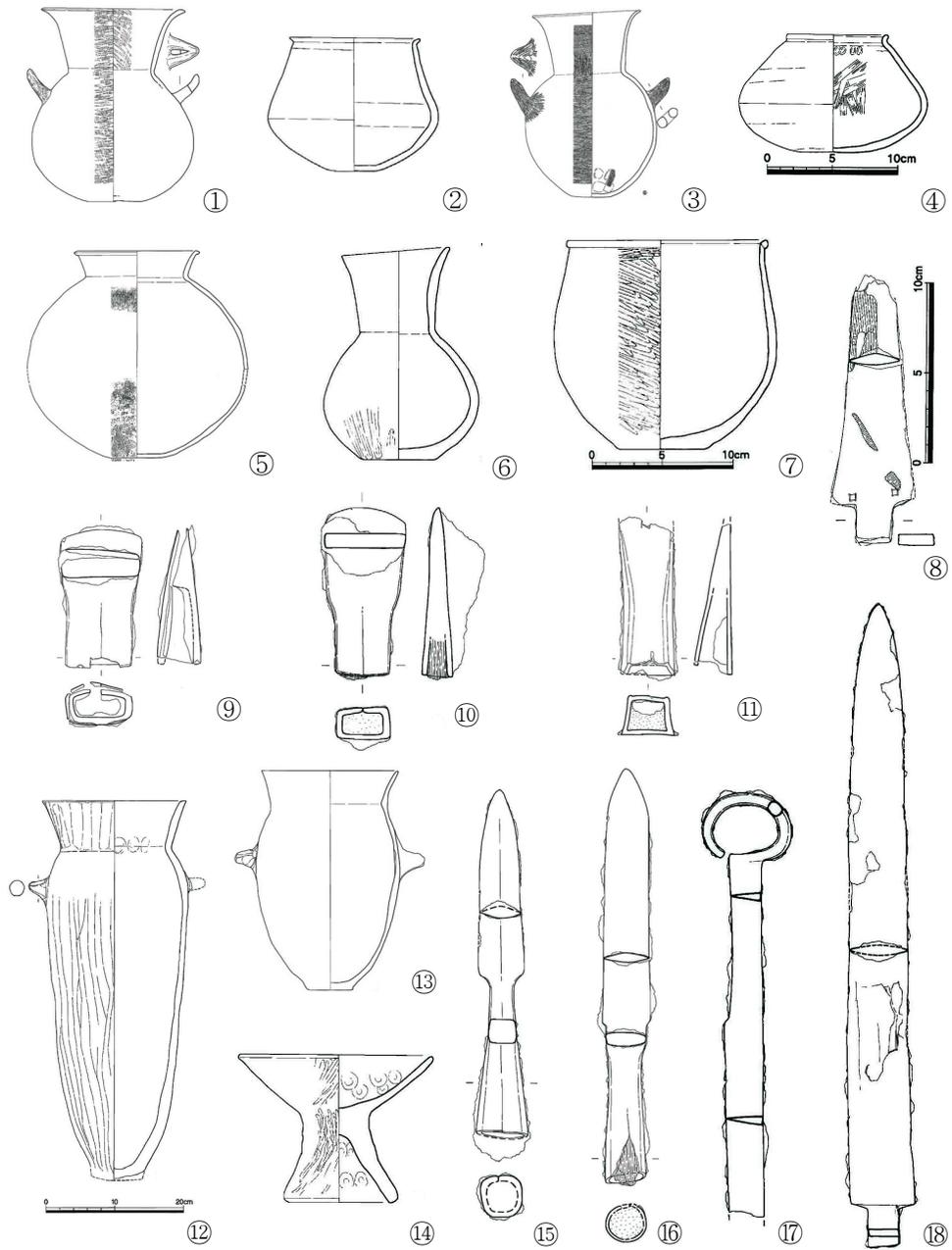


<도면 13> I 단계 목관묘 출토유물

문당동 II-1호(①), 입당 FI-42호(②·③) 조양동 5호(④·⑩·⑪), 입당 FII-34호(⑤), 팔달동 45호(⑥·⑦), 팔달동 40호(⑧), 팔달동 75호(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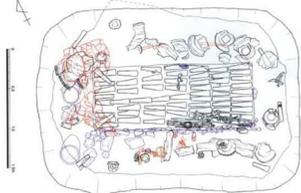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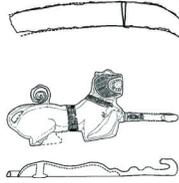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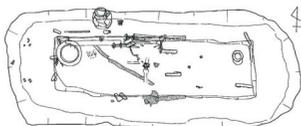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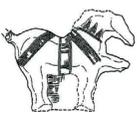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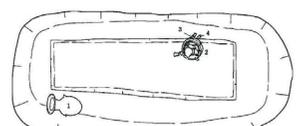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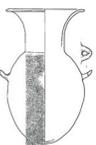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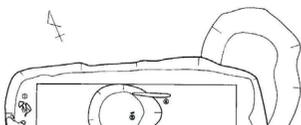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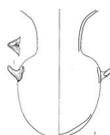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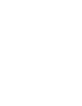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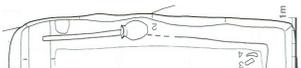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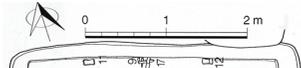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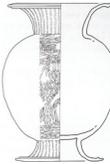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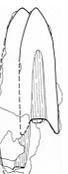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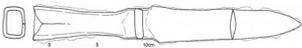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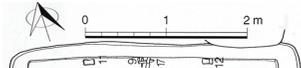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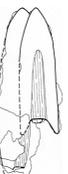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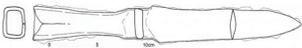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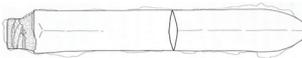
평면도	유물
 <p>다호리 1호</p>	
 <p>조양동 38호</p>	
 <p>예산리 3호</p>	
 <p>예산리 31호</p>	
 <p>조양동 28호</p>	
 <p>예산리 18호</p>	

<도면 14> II단계 목관묘 평면형태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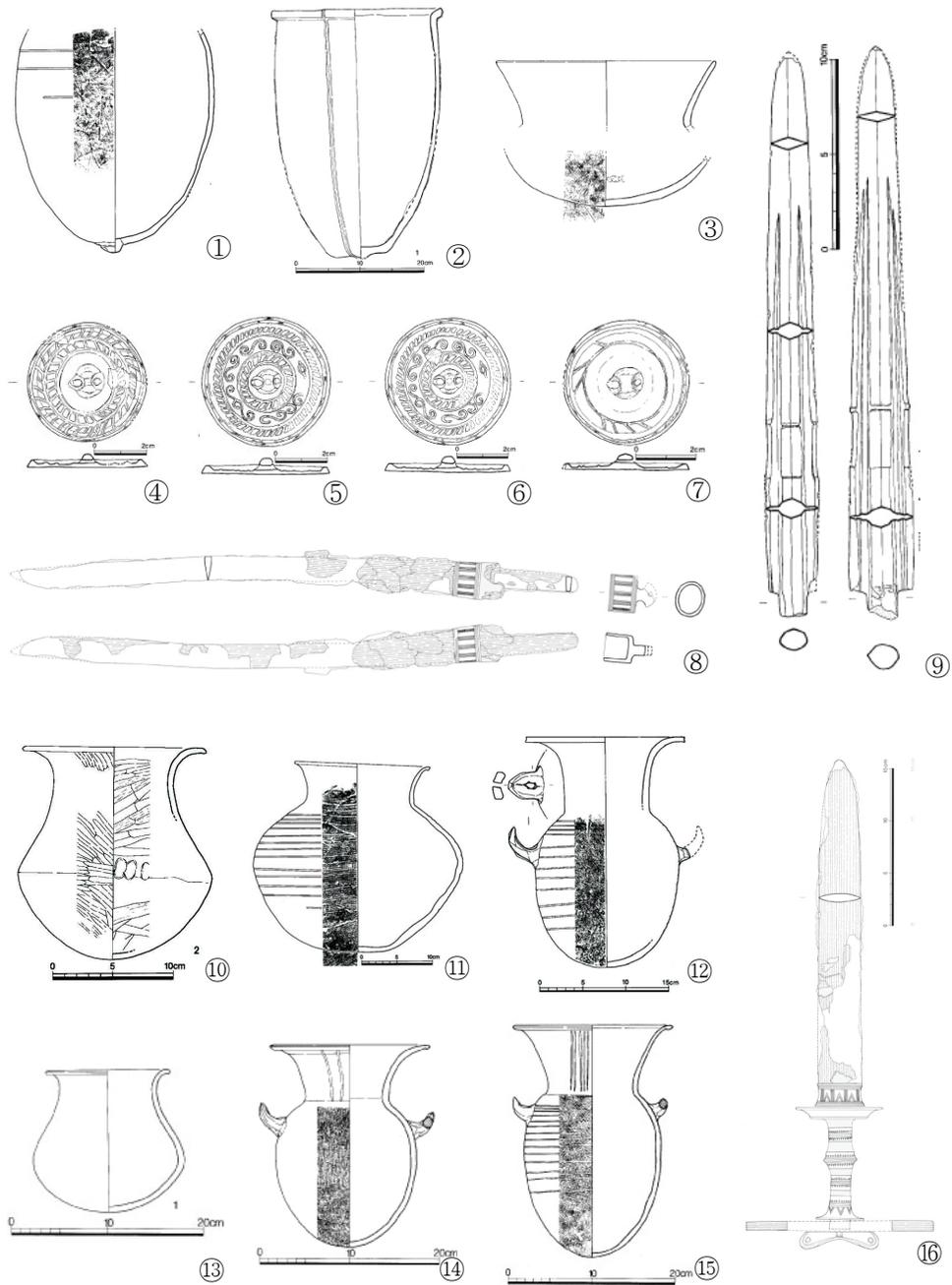


<도면 15> II단계 목관묘 출토유물

조양동 38호(①·②·⑤·⑨~⑪), 예산리 31호(③·④·⑧), 팔달동 94호(⑦·⑧), 조양동 11호(⑫·⑮·⑯), 조양동 58호(⑬·⑭), 팔달동 30호(⑰·⑱)

평면도	유물			
 <p data-bbox="267 473 439 511">사라리 130호</p>				
 <p data-bbox="267 685 439 724">조양동 60호</p>				
 <p data-bbox="267 898 439 937">조양동 35호</p>				
 <p data-bbox="267 1101 439 1139">팔달동 107호</p>				
 <p data-bbox="267 1304 439 1342">다운동 나19호</p>				
 <p data-bbox="267 1516 439 1555">다운동 나13호</p>				
				

<도면 16> Ⅲ단계 목관묘 평면형태 및 출토유물



<도면 17> III단계 목관묘 출토유물

사라리 130호(①~⑨·⑬), 사라리 78호(⑩·⑪), 사라리 110호(⑫), 대성동 27호(⑬·⑭), 대성동 53호(⑮)

參 考 文 獻

《史 料》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單行本》

姜仁求, 『古墳研究』, 學研文化社, 1991.

權赫在, 『韓國地理』, 法文社, 1996.

李盛周, 『新羅·伽耶 社會의 起源과 成長』, 學研文化社, 1998.

崔秉鉉,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92.

崔鍾圭, 『三韓考古學研究』, 書景文化社, 1995.

《論 文》

권민성, 「2~3세기 포항옥성리 목곽묘연구 :부장품 배치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權志英, 「弁·辰韓社會의 發展樣相에 대한 研究-木棺墓에서 木槨墓로의 轉換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權五榮,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6.

金基雄, 「墓制」, 『韓國史論』13, 國史編纂委員會, 1983.

權龍大, 「玉田古墳群 木槨墓의 分化樣相과 位階化에 대한 一考察」, 慶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5.

金龍星, 「土器에 의한 大邱·慶山地域 古代墳墓의 編年」, 『한국고고학보』35집, 한국고고학회, 1994.

金容卓, 「嶺南地方 三韓後期 木槨墓의 出現과 지역적 전개양상 考察」, 東義大學校 大

- 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 金銀眞, 「浦項地域 木槨墓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5.
- 朴升圭, 「慶州 舍羅里遺蹟 130號墓에 대하여」, 『신라문화』 14집, 신라사학회, 1997.
- 徐吉德, 「원형점토띠토기의 변천과정 연구-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2006.
- 申敬澈, 「김해 예안리 160호분에 대하여」, 『가야고고학논집』, 가야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 「瓦質土器文化論」 『韓國考古學의 半世紀』 제1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1995.
- 安在皓, 「三韓時代 後期 瓦質土器의 編年-下垚遺蹟을 中心으로」, 『영남고고학보』 13집, 영남고고학회, 1993.
- 李在賢, 「嶺南地域 木槨墓에 대한 연구」,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4.
- 「영남지역 목곽묘의 구조」, 『영남고고학보』 15집, 영남고고학회, 1994.
- 「弁·辰韓 社會의 발전과정-木槨墓의 출현배경과 관련하여」, 『영남고고학보』 17집, 영남고고학회, 1995.
-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3.
- 李盛周, 「原三國 土器 胎土의 類型」, 『영남고고학보』 5집, 영남고고학회, 1998.
-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신라문화』 14집, 신라사학회, 1997.
- 「弁·辰韓地域의 墳墓 出土 1~4世紀 土器의 編年」, 영남고고학회, 1999.
- 李在興, 「慶州地域 木槨墓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6.
- 李熙濬, 「신라의 성립과 성장 과정에 대한 고찰」, 『신라고고학이 제문제』, 한국고고학회, 1996.
- 「울산하대 가지구 발굴조사 성과」, 『제1회 영남고고학회 발표회 發表要旨』, 영남고고학회, 1991.
- 「삼한시대 후기 와질토기 편년」, 『영남고고학보』 14집, 영남고고학회, 1994.
- 林東材, 「三韓時代 慶州 隍城洞儒籍의 性格에 대한 研究」, 東義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5.
- 林孝澤, 「金海 良洞里 古墳群 發掘調査 概報」, 『제 35회 전국역사학대회 논문 및 발표요지』, 1992.
- 尹溫植, 「영남 지방 원삼국시대土器 「樣式」論의 제기」, 『영남고고학』 31집, 영남고고학회, 2002.

- 차순철, 「同穴主副槨式 木槨墓 研究:洛東江東岸地域을 中心으로」, 慶星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9.
- 崔鍾圭, 「무덤에서 본 三韓社會의 構造 및 特徵」 『韓國古代史論叢』 2, 韓國古代史會研究所編, 1991.
- 洪潛植, 「묘제의 비교로 본 가야와 고대일본」, 『가야사론집』 1, 김해시, 1998.
- 「농기구와 부장유형-영남지역의 2세기 후반~4세기대 분묘부장품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44집, 2001.

《報告書·報告文》

- 國立慶州博物館·浦項市, 『玉城里 古墳群 I ~ III-가 地區發掘調査報告』, 2000.
- 國立慶州博物館, 『慶州 朝陽洞 遺蹟 I』, 2000.
- 國立慶州博物館, 『慶州 朝陽洞 遺蹟 II』, 2003.
-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포항 옥성리고분군(포항 국도7호선 확장공사구간내)발굴조사 보고서』, 2002.
-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김천 문당동유적』, 2008.
- 慶星大學校博物館, 『金海大成洞古墳群 I』, 2000.
- 慶星大學校博物館, 『金海大成洞古墳群 II-13·18·29號墳-』, 2000.
- 東義大學校博物館, 『昌原道溪洞古墳群』, 1996.
- 東義大學校博物館, 『金海良洞里古墳文化』, 2000.
- 文化財研究所, 『김해 양동리 고분 發掘調査 報告書』, 1989.
- 釜山大學校博物館, 『東萊福泉洞古墳群 I』, 1983.
- 釜山大學校博物館, 『金海禮安里古墳群 I』, 1985.
- 釜山大學校博物館, 『釜山老圃洞遺蹟』, 1988.
- 釜山大學校博物館, 『東萊福泉洞古墳群 II』, 1990.
- 釜山大學校博物館, 『金海禮安里古墳群 II』, 1993.
- 釜山大學校博物館, 『蔚山下垵遺蹟-古墳 I』, 1997.
- 釜山大學校博物館, 『蔚山下垵遺蹟-古墳 II』, 1998.
- (財)嶺南文化財研究院, 『浦項玉城里 古墳群 I·II-나地區』, 1998.
- (財)嶺南文化財研究院, 『慶山林堂洞遺蹟 I』, 『F, H地區 및 土城』, 1999.

- (財)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八達洞遺蹟 I』, 2000.
- (財)嶺南文化財研究院, 『慶州舍羅里遺蹟Ⅱ-木棺墓, 住居址』, 2001.
- (財)嶺南文化財研究院, 『大邱 佳川洞遺跡』, 2004.
- (財)嶺南文化財研究院,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구간내 慶州 德泉里遺蹟Ⅱ』, 2008.
- 中央文化財研究院·現代모비스(株), 『慶州 仁洞里遺蹟』, 2004.
- 昌原大學校博物館, 『蔚山 茶雲洞 遺蹟Ⅱ』, 2006.
- 충북대학교박물관, 『진천송두리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91.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山 林堂遺蹟』 I ~ IV, 1998.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市 隍城洞 564-3番地 發掘調査報告書-隍城洞 一帶의 遺蹟-』, 2000.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市 隍城洞 537-2 賃貸아파트 新築敷地 發掘調査 報告書』, 2001.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 隍城洞 950-1·7遺蹟 發掘調査」, 指導委員會 資料, 2001.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 隍城洞 遺蹟-537-1·10, 537-4·535-8, 544-1·6番地 發掘調査 報告書』, 2002.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慶州 隍城洞 遺蹟 I -강변로 개설구간 발굴조사보고서-』, 2003.

A Study on Youngnam's wooden coffin tombs

Ryu, Woi-ki

Department of Cultural Propertie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ang-ho)

(Abstract)

The Three Han times are the important era that an each local political structure got the foundation of an ancient nation, that various researchers have been performed in archeology field.

The Three Han times are transitional society changed by ironware culture at bronze ware culture, that a memorial service held before the tomb is a wooden coffin tomb.

I divided a wooden pipe grave to Mutanal step, Seungmuntanal step, Gyukjatanal step with bases by a change of tanal.

This is to have partitioned off a change of blade to a step, that is not blade which is same at all an earthen vessel is performed.

In this state, I recognize it about wooden coffin tomb opening, and a change aspect by a wooden coffin tomb step.

A wooden coffin tomb grave uses wooden coffin, and it is a form protecting a body unlike the memorial service held before the tombs that used a stone. stonelined pit tomb or wooden coffin tomb surrounded with

piled stones occurred in harmony the group which built a grave as they used a stone and immigrants.

As a result of judging it to Chinese total relics aren't excavated to one phase, and they are confirmed to two phases, one phase installs Han four a district ever. Two phases until mid 1st century BC. from the latter half of the 1st century BC. Three phase until mid second century that wooden coffin tomb and wooden chamber tomb coexist.

The Sarari No.130 area is changed with extra-large size and there is the difference that relics are numerical too.

As a result of judging it to area aspect is confirmed and stratification is progressed at size of area or relics, It originates in three phases.

A small-sized wooden coffin tomb decreases, and large size increases go in the latter period. It is to prepare a place burying relics by increase of relics, it shows hierarchical composition heartburning.

As a result of judging it to, Wooden coffin tomb changed gradually from three steps of Wooden coffin tomb, wooden chamber tomb developed by coexistence Wooden coffin tomb and wooden chamber tomb.